



바른답·알찬풀이

중등 국어 2-1





갈래 학습

01 시

맞보기 문제

6~7쪽

- 1 화자 2 나, 너 3 ① 4 의인법 5 ③ 6 반어법
7 (1) × (2) × (3) ○ 8 임 향한

- 1 화자는 시에서 시인을 대신하여 말하는 이로 시인의 생각과 감정, 시의 주제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 2 화자가 시 속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3 은유법을 사용하여 '해바라기'를 '첫 시약시(색시)'에 비유한 것은 ①이다.
오답 풀이 ② '꽃 피네'를 반복하여 표현하는 반복법이 사용되었다.
③ '결별'과 '축복'이라는 모순된 시어를 연결하는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④ '눈'의 흰색과 '산수유'의 붉은색을 대조하는 대조법이 사용되었다.
⑤ '~모르겠는가'와 같이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설의법이 사용되었다.
- 4 〈보기〉의 시는 '플라타너스'에 인격을 부여하여 사람처럼 표현하는 의인법을 사용하였다.
- 5 ③에서 '아'라는 감탄사를 통해 적막한 들판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강조하는 영탄법이 쓰였다.
오답 풀이 ①, ⑤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②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④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 6 말하고자 하는 의도나 감정을 반대로 표현하여 강조하는 표현 방법을 '반어법'이라고 한다.
- 7 (1) 시조는 고려 말엽부터 발달하여 현재까지 창작되고 있다고 하였다.
(2) 개화기 이후부터 지어진 시조를 현대 시조라고 한다.
- 8 시조는 형식상 종장의 첫 음보가 3음절로 고정된다.

02 소설

맞보기 문제

8~9쪽

- 1 (1) ○ (2) × (3) ○ 2 인물, 사건 3 나, 너, 너 4 (1) ○ (2) × 5 1인칭 관찰자 서술자 6 ② 7 역순행 8 재구성, 사회·문화적 상황

- 1 소설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꾸민 낸 이야기이다.
- 2 바른답·알찬풀이

- 2 소설 속에 등장하는 사람을 '인물'이라고 하고, 이러한 인물들이 겪거나 벌이는 일을 '사건'이라고 한다.
- 3 소설의 배경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 양상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4 서술자가 등장인물이나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작품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
- 5 소설 속 인물이 '나'로 등장하여 다른 인물이나 사건들을 지켜 보며 서술하고 있으므로 '1인칭 관찰자 서술자'이다.
- 6 소설에서 인물 간의 갈등과 대립이 시작되는 단계는 '전개'이다.
- 7 〈동백꽃〉은 현재의 사건을 서술한 후 '나'와 점순이가 갈등하는 원인이 되는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는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 8 작가, 독자, 사회·문화적 상황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03 수필

맞보기 문제

10쪽

- 1 형식 2 ③ 3 (1) ○ (2) × (3) ○ 4 ⑤

- 1 일상생활에서 직접 경험하거나 느끼고 생각한 것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쓴 글은 수필이다.
- 2 수필은 산문 문학이다. 운율은 운문 문학의 요소에 해당한다.
- 3 (2) 수필은 정해진 형식의 제약이 없어 비교적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글이다.
- 4 사건의 진행에 따라 고조되는 갈등 관계를 파악하며 읽는 것은 소설, 희곡, 시나리오를 감상하는 방법이다.

04 희곡·시나리오

맞보기 문제

11쪽

- 1 연극 2 ③ 3 절정 4 (1) ○ (2) ○

- 1 희곡은 연극의 무대 상연을 목적으로 쓴 대본이다.
- 2 등장인물의 수에 제약이 거의 없는 것은 시나리오에만 해당하는 특징이다.
- 3 '절정'에서 갈등과 대립이 최고조에 이른다.

05 설명문·보고서

맛보기 문제

12쪽

1 정보 2 ㉓ 3 ㉓ 4 ㄱ, ㄴ

- 1 설명문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어떤 대상을 구성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을 ‘분석’이라고 한다.
- 3 조사 결과는 보고서의 구성 단계 중 ‘중간’ 부분에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보고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해야 한다. ㄴ의 독특하고 개성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수필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ㄹ의 문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포함해야 하는 것은 건의문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06 논설문·건의문

맛보기 문제

13쪽

1 설득 2 ㉓ 3 ㄱ, ㄴ 4 (1)○ (2)×

- 1 어떤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여 독자를 설득하는 글을 논설문이라고 한다.
- 2 논설문의 ‘본론’에서는 주장이나 의견이 구체적으로 전개되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논리적으로 제시된다.
- 3 건의문에는 건의를 받는 특정한 대상이 있으며(ㄱ), 문제 상황과 요구 사항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ㄴ).
- 4 (2) 건의문을 읽을 때는 건의하는 내용의 기발함, 창의성 여부보다는 설득력이 있고 수용할 만한지를 판단하며 읽어야 한다.

1 경험의 발견과 공감

01. 넌 바보다

단원 맛보기

16쪽

1 ㉓-㉓-㉓-㉓ 2 반어 3 ㉓ 4 (1)○ (2)×

- 3 ①, ③은 운율, ②는 도치, ⑤는 역설 표현에 관한 설명이다.

내용 분석

17쪽

1 나 2 모범적 3 긍정적

표현 분석

17쪽

바보, 본받고, 반어, 바보, 운율

이해와 탐구

18~21쪽

1 (1) 개구멍, 검댕 칠, 전근, 허풍, 웃음 (2) 직접적, 긍정적 (3) 관찰, 순수 2 (1) 부정적, 반대 (2) 강조 3 (1) 가락 (2) 강조 4 (1) 두엄, 파리, 백송골, 자빠짐 (2) 약자, 허세 (3) 백성, 탐관오리, 권력자 (4) 부정적/비판적, 탐관오리, 비판/풍자 (5) 풍자, 웃음 (6) 음보, 반복

문제 해결과 적용

22쪽

1 (1) 허위 (2) 발, 전화, 풍자, 웃음

! 학습 활동 응용

18~22쪽

01 ㉓ 02 ㉓ 03 ㉓ 04 반어 표현,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한다. 05 ㉓ 06 반복 07 ㉓ 08 ㉓ 09 ㉓ 10 ① 11 두꺼비 12 ① 13 ㉓ 14 ㉓, ㉓ 15 ㉓ 16 경찰서에서 허위 신고를 하지 말자. 17 ㉓ 18 ㉓

- 01 ‘너’가 혼자 있는 친구에게 먼저 말을 거는 내용은 이 시에 나오지 않는다.
- 02 1연에서는 ‘너’의 행동을 열거하며 ‘너’에 대한 ‘나’의 마음을 반어 표현을 써서 반대로 표현하였는데, 2연에서는 ‘그런 네가 좋아서 그림자처럼 / 네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 나는?’이라는 시구를 통해 ‘너’를 좋아하는 ‘나’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03 이 시의 화자인 ‘나’는 바보 같은 정도로 착하고 마음이 고운 ‘너’를 좋아하고 있다. 그러나 ‘너’가 상처를 입을까 봐 걱정하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 04** 속으로는 좋으면서 겉으로는 ‘바보’라고 하는 것은 속마음을 반대되게 표현하는 반어 표현의 특징이다.
- 05** ‘나’의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함으로써 ‘너’를 좋아하는 ‘나’의 마음과 ‘너’의 좋은 점을 더욱 강조할 수 있다.
- 06** 이 시에서는 ‘정말’, ‘바보’, ‘너는 참 바보다.’ 등의 시어와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였다.
- 07** 이 시에서는 특정 시어와 시구를 반복하여 ‘너’의 행동을 본받고 싶은 ‘나’의 마음을 강조하였다.
- 08** 이 시조는 동물에 빗대어 대상을 우의적으로 표현하였을 뿐, 속마음과 반대로 드러내는 반어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 09** 두꺼비는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앉아 있으므로 파리를 잡기 위해 올라간 것은 아니다.
- 10** 두꺼비는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앉아 자신이 강자임을 드러내며 거드름을 피우다가도 백송골이 나타나자 두려움에 떠난다. 이를 통해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 앞에서는 약한 두꺼비의 태도를 알 수 있다.
- 11** 이 시조는 탐관오리를 상징하는 두꺼비가 힘없는 백성을 상징하는 파리를 물고 있다가 더 힘이 있는 권력자를 상징하는 백송골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통해 탐관오리의 허세를 비판하였다.
- 12** 두꺼비는 겉으로는 강한 척 허세를 부리지만 실제로는 겁이 많아 백송골을 보고 놀라 두엄에서 뛰어내리다가 자빠지는 등 우스꽝스럽게 표현되고 있다.
- 13** 풍자는 보통 웃음을 유발하기 때문에 작품의 분위기를 밝고 가볍게 만든다.
- 14** 이 시조는 일정한 음보를 반복하고, 음보마다 3~5자의 일정한 글자 수를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15** 이 광고는 경찰이 사람들의 장난 전화로 인해 출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 16** 경찰관이 어디론가 뛰어가는데 남자가 수화기처럼 경찰의 발을 붙잡고 있는 광고의 사진과 ‘잘못 건 112 신고 전화 긴급 출동의 발목을 잡습니다.’라는 문구를 통해 광고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할 수 있다.
- 17** 이 광고는 장난 전화를 하는 남자의 손에 경찰관의 발이 수화기처럼 잡혀 있는 모습을 통해 웃음을 유발함으로써 허위 신고를 하는 사람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 18** 이 광고의 주제는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하지 말자는 것이다. 따라서 ‘당신의 허위 신고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은 속마음을 반대로 표현하는 반어 표현을 활용한 것이다.



작품 개관 나, 운율, 반어

시의 짜임 너, 나

시에 드러나는 ‘나’의 경험과 태도 교문, 눈물, 웃음, 그림자, 긍정적

반어의 표현 방법과 효과 부정적, 강조

운율의 표현 방법과 효과 바보, 본받고, 강조

풍자의 개념과 표현 효과 간접적, 웃음, 비판 의식

- 01** ④ **02** ② **03** ⑤ **04** 너는 참 바보다. / 너는 정말 정말 바보다. **05**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너’를 좋아하여 닮고 싶다. **06** ③ **07** ① 탐관오리, ② 백성, ③ 더 힘이 있는 권력자 **08** 모 처라 날랜 나이니 망정이지 여혈 질 뻔했구나 **09** ③ **10** ④

- 01** 이 시에서는 ‘바보’, ‘정말’ 등의 단어를 반복하고 ‘너는 참 바보다.’라는 동일한 문장을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02** ‘너’는 가까이에서 있는 개구멍으로 빠져나가면 금방일 것을 일부러 돌아서 교문으로 다닌다고 하였다.
- 03** ‘너는 참 바보다.’라는 표현은 표면적으로는 ‘너는 참 어리석다.’라는 의미이지만, ‘너’가 따뜻하고 순수하고 착한 아이라는 ‘나’의 속마음이 드러나며 ‘너’가 좋은 아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 04** <보기>에서 할머니는 꼬마를 귀여워하는 속마음과는 반대로 알밋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반어 표현이 사용된 시구는 ‘너’를 좋아하면서도 ‘바보’라고 표현한 ‘너는 참 바보다.’와 ‘너는 정말 정말 바보다.’이다.
- 05** 1연을 통해 ‘너’가 착하고 바르게 생활함을 알 수 있고, 2연에서 그런 ‘너’를 ‘나’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으로 보아 ‘나’는 ‘너’를 좋아하고 닮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06** (가)는 일정한 음보를 반복하고 3~5자의 일정한 글자 수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07** (나)에서 선생님은 조선 후기에 탐관오리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더 힘이 있는 권력자에게는 아첨하였다고 하였다. 조선 후기에 창작된 (가)가 이러한 시대 상황을 반영하였다면, 백송골을 두려워하는 두꺼비(㉠)는 탐관오리를, 두꺼비에게 잡힌 파리(㉡)는 백성을, 두꺼비가 두려워하는 백송골(㉢)은 더 힘이 있는 권력자를 비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08** 중장에서 두꺼비는 백송골을 보고 놀라서 풀쩍 뛰다가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중장에서는 자신이 날랜 덕에 다치지 않았다고 말하며 허세를 부리고 있다.

- 09 (다)는 급할 때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장난이나 허위로 신고하는 행동을 하지 말자는 내용을 전달하는 광고이다.
- 10 (가)에서는 두꺼비를 희화화하여 풍자함으로써 (다)에서는 경찰의 발을 수화기로 사용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가)와 (다) 모두 공통적으로 웃음을 유발하여 대상을 비판하는 풍자를 활용하고 있다.

02. 나의 모국어는 침묵

단원 맛보기

26쪽

1 떠올린 경험 정리하기 2 (1) × (2) ○ 3 ④ 4 ①

- 3 독자가 대상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웃음을 사용하는 것은 풍자 표현의 특징이다.
- 4 ①은 'A는 B이다.'의 형식으로, 원관념과 보조 관념을 연결하여 빗대는 표현 방법인 은유에 해당한다.

핵심 속삭

P. 27 대화, 불청객

P. 28 대화, 너무 많이 말해, 침묵, 대화, 침묵

제대로 독해 & 문제로 확인

27~28쪽

1 ④ 2 침묵은 흉내가 아니라 존재의 평화로움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다. 3 ③ 4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입니다.

- 1 자신을 불청객으로 여긴다고 생각한 것은 글쓴이의 생각일 뿐 인디언들의 생각이 아니다.
- 2 글쓴이는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인디언들을 따라 하다가 과파하고 거만하다는 평가를 받은 후 침묵은 흉내가 아니라 존재의 평화로움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임을 깨달았다.
- 3 이 글에서 글쓴이와 인디언들이 갈등을 겪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인디언들이 자신에게 지어 준 이름에 대해 따지고 싶었다고 한 부분은 글쓴이의 개인적인 농담이라고 볼 수 있다.
- 4 '자기 민족의 언어'라는 뜻의 '모국어'가, 아무 말도 없이 잠잠히 있는 상태인 '침묵'이라는 표현은 모순되어 보이지만, 침묵을 중요하게 여기는 인디언들의 생각이 담긴 역설 표현이다.

이해와 탐구

29쪽

- 1 (1) 반응, 존재, 평화로움, 말해 (2) 침묵, 존재
2 (1) 모국어, 침묵, 모순 (2) 인상적

문제 해결과 적용

30쪽

- 1 (1) 아빠, 도서관, 스마트폰 (2) 책

! 학습 활동 응용

29~30쪽

- 01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며 살고 있다. 02 ③ 03 ⑤
04 (1) ○ (2) × 05 ④ 06 ① 07 스마트폰으로 인해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문제 제거나 비판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강조할 수 있다. 08 ④

- 01 글쓴이는 인디언들에게 '너무 많이 말해'라는 인디언식 이름을 얻고 자신이 이 생에서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자신의 언어 습관을 돌아보았다.
- 02 인디언들에게 '침묵'은 상대방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의미한다.
- 03 '모국어'가 '침묵'이라는 표현은 겉보기에는 모순되지만, 그 속에 '말보다 침묵으로 상대를 잘 느낄 수 있다'는 의미를 담은 역설 표현이다.
- 04 역설 표현을 사용하면 전하고자 하는 바를 인상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 05 이 만화에서 딸은 아빠에게 스마트폰을 갖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다.
- 06 역설 표현은 문장의 앞뒤 의미가 모순되어야 한다. 도서관은 책을 읽기 위해 존재하는 곳인데, 이를 '책을 읽지 않는 도서관'이라고 한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된 표현이다.
- 07 역설 표현은 표현에 담긴 사실이나 진리를 인상적으로 나타내는 효과가 있다.
- 08 역설 표현은 겉으로는 이치에 맞지 않고 모순되지만 그 속에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을 말한다.

소단원 마무리

31쪽

글의 개관 체험, 감동, 역설

글의 짜임 침묵, 전통, 언어, 인디언

글쓴이의 경험과 그에 따른 깨달음 대화, 거만, 침묵, 평화로움, 말 역설 표현과 그 효과 모순, 말, 인상적



01 ④ 02 ① 03 말보다 침묵이 상대방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04 ①, ⑤ 05 ③ 06 ① 07 그 사람의 특징이 드러나도록 짓는다. 08 ②

- 01 글쓴이가 인디언들의 행동에 당황한 것은 맞지만 특별히 갈등을 겪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이 글에는 다양한 갈등이 단계별로 드러나지 않으며, 다만 글쓴이가 겪은 일들과 그 경험을 통해 글쓴이가 깨달은 바가 드러난다.
- 02 글쓴이는 인디언들에게 먼저 다가가 자신을 소개하며 대화를 나누려 했으나 인디언들은 글쓴이에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
- 03 (다)에서 인디언들은 누군가를 만나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자기 앞에 있는 존재를 가장 잘 느끼기 위해 침묵한다고 하였다.
- 04 (다)에서 글쓴이는 인디언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처음에 침묵하는 것은 그들의 전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어설픔게 인디언들의 침묵을 흉내 내려다가 과파하고 거만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침묵은 흉내가 아니라 존재의 평화로움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 오답 풀이** ② 글쓴이는 상대방을 가장 잘 느끼는 방법은 말이나 대화가 아니라 침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 ③ 인디언들은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침묵을 한다고 하였다.
- ④ 인디언들은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의 존재를 느끼기 위해 침묵하는 것이므로 이를 거만한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 05 여러 부족으로 이루어진 인디언들은 부족마다 언어가 매우 다르다고 했으며, 그럼에도 자신들의 모국어를 침묵이라고 답한 것은 그것이 진짜 모국어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침묵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이다.
- 06 ①은 글쓴이가 인디언들보다 침묵하지 못하고, 인디언들보다 훨씬 말을 많이 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인디언들은 글쓴이에 비해 덜 말하고 침묵할 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 07 글쓴이가 얻은 인디언식 이름은 '너무 많이 말해'이다. 이는 인디언들이 생각하는 글쓴이의 특징이 드러난 이름으로, 이를 통해 글쓴이는 자신이 살면서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음을 반성하고 있다.
- 08 ①은 역설 표현을 활용한 예이다. 역설 표현은 겉으로는 모순되지만 그 속에 중요한 사실이나 진리를 담은 표현이므로, 도서관에서 책을 읽지 않는다고 표현한 ②가 적절하다.

03. 공감하며 대화하기

단원 맛보기

34쪽

1 감정, 협력적 2 (1) × (2) ○ (3) ○ 3 ⑤ 4 ④

- 3 공감하며 대화하기는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말하기로, 상대방의 문제점을 평가하고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⑤와 같은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
- 4 공감하며 대화를 할 때에는 명령적이고 단정적인 어조와 단호한 태도보다는 제안하고 요청하는 어조와 공손하고 진지한 태도로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제대로 독해 & 문제로 확인

35~43쪽

1 ② 2 ①, ② 3 ② 4 판단, 쓸데없는, 걱정, 버릇 5 ⑤
6 ②, ④ 7 ② 8 ⑤ 9 ③ 10 ① 11 ③, ⑤ 12 ⑤
13 ③ 14 ④ 15 ④ 16 ①, ③ 17 ④ 18 ②

- 1 민아는 과제물을 혼자 힘으로 만들고 싶어 하므로 엄마가 도와주지 않아 서운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2 엄마는 스스로 과제물을 하려는 민아의 생각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며 과제물을 낚아채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엄마는 민아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고 있다.
- ③ 엄마는 민아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민아를 다그치고 있다.
- 3 민아는 자신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그 생각을 강요하는 엄마의 태도에 화를 내는 것이다.
- 4 엄마는 민아가 과제물을 만드는 것을 자신의 기준에서 '쓸데없다'고 판단하여 이야기하였고, 민아는 그런 엄마에게 화가 나 버릇없이 쓰아붙이고 있다.
- 5 민아는 자신을 걱정하는 엄마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손을 뿌리치며 집을 나가 일방적으로 대화를 중단하였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이러한 행동은 원만한 대화를 방해한다.
- 6 민아 엄마는 민아가 화를 내는 이유를 몰라 당황스러웠을 것이고, 민아가 집을 나가서 걱정하였을 것이다.
- 7 다은이는 평소와 다른 민아의 어두운 표정과 기운이 없는 모습에 걱정이 되어 먼저 말을 건 것이다.
- 8 다은이는 민아의 문제점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강하게 조언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 9 다은이는 '너희 엄마는 너한테 엄청 잘해 주시니까'라고 말하며 민아가 처한 상황의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하고 있다.
- 10 다은 엄마는 민아 엄마의 말에 맞장구를 쳐 주고 감정에 공감하며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
- 11 민아는 다은이에게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는 중이므로 다은이가 믿어 주지 않을까 걱정하거나 다은이에게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12 다은이는 민아에게 자신의 경험을 말해 줌으로써 민아가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여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13 다은이는 민아가 부담을 느끼지 않게 '그냥 우리 집은 그렇다는 얘기야.'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다은이는 민아에게 명령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
 ② 다은이는 민아에게 조언해 줄 뿐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지 않았다.
 ④ '그냥 우리 집은 그렇다는 얘기야.'라고 하며 자신의 조언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지 않았다.
 ⑤ '미안', '그냥 우리 집은 그렇다는 얘기야.' 등의 말을 통해 다은이는 민아가 자신의 조언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4 다은 엄마는 민아 엄마가 민아를 유산할 뻔해서 고생했던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 15 민아 엄마는 다은 엄마의 말을 떠올리며 민아에게 먼저 미안하다는 쪽지를 건넨다. 이는 자신의 입장만 강요하지 않고 민아의 상황과 마음을 이해해 보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민아 엄마가 앞으로 민아를 더 보호하려고 애쓴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16 다은 엄마는 '민아 엄마는 민아를 사랑해서 뭐든 다 해 주려는 건데 그걸 몰라줘서 섭섭했겠네.'라며 민아 엄마의 생각과 감정을 재진술하고 있다. 또한 자신이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들었던 생각을 말하며 민아 엄마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 17 엄마는 자신의 만들기 솜씨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아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만들기를 좋아했다고 말하고 있다.
- 18 민아가 도움이 필요하면 엄마에게 먼저 요청하기로 하고, 민아 엄마도 그런 민아를 존중해 주기로 하는 등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두 사람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핵심 속삭

P. 37 상황, 가치관
P. 43 존중

이해와 탐구

44~47쪽

1 갈등, 고민, 위로, 갈등, 이해 2 (1) 공감, 경험 (2) 갈등, 안심 (3) 이해, 대화 3 (1) 관심, 재진술, 경험 (2) 고민 [활동 더하기] 축구, 갈등

문제 해결과 적용

48~49쪽

1 (1) 상, 기쁜, 불편해, 위로 (2) 칭찬, 공감 (3) 집중, 자기중심적, 감정, 충고

학습 활동 응용

44~49쪽

01 ② 02 ⑤ 03 ② 04 이해, 관점 05 ③ 06 민아의 고민과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조언을 건네고 있다. 07 ② 08 처지, 이해, 마음 09 (1) ㉠ (2) ㉡
10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한다. 11 ④
12 ② 13 ③ 14 ③ 15 ④ 16 ③ 17 칭찬, 기쁜
18 ④ 19 ⑤

- 01 민아와 엄마는 각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달라서 갈등하게 된 것이다.
- 02 민아는 다은이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엄마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라는 조언을 듣게 된다.
- 03 다은 엄마와의 대화를 통해 민아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는 없었다.
- 04 공감하며 대화하기는 상대방의 감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협력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대화이다.
- 05 다은이는 민아의 표정과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며 대화하고 있다.
- 06 다은이는 민아의 고민을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엄마와 갈등을 겪고 있는 민아에게 조언하고 있다.
- 07 다은이가 민아의 고민을 잘 들어 주고 공감해 주었으므로 민아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 08 상대방이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해 준다고 느낄 때 마음을 열고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교과서 학습편

- 10 다른 엄마는 다은이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민아 엄마와 공감을 형성하고 있다.
- 11 성주는 다은이의 생각과 감정이 어떠할지를 고려하여 자신의 말로 재진술하고 있다.
- 12 은호는 아빠 때문에 억지로 축구를 한 것이냐는 찬영의 질문에 '처음엔 아니었어.'라고 대답하였다.
- 13 공감하며 대화하기를 한다고 해서 대화 참여자들이 언제나 원하는 답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다.
- 14 형진이는 상을 받은 경훈이가 잘한 것을 인정해 주지 않고 진심으로 축하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 15 친구들이 자신을 불편해하는 것 같다는 송이의 말에 유정이는 잘 모르겠다고 하며 너무 예민하게 생각한 것이라고 할 뿐 다른 친구들을 걱정하지 않았다.
- 16 형진이는 경훈이의 마음에 공감해 주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고 있으며, 유정이는 송이의 처지와 감정을 이해하지 않고 자신의 관점에서만 말하고 있다. 즉 형진이와 유정이 모두 상대방과 공감하며 대화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 17 경훈이는 교내 발표 대회에서 상을 탄 기쁨을 형진이와 나누고 축하와 칭찬을 받고 싶어서 형진이에게 이야기한 것이다.
- 18 형진이는 경훈이의 말을 끊고 자신의 말을 하지는 않았다.
- 19 송이는 유정이가 자신의 불안하고 힘든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한 것인데, 유정이가 문제점을 분석하고 충고만 하려고 하자 기분이 상하였다.



소단원 마무리

50쪽

웹툰의 개관 갈등, 공감

웹툰의 주요 장면 민아, 조연, 위로, 대화

민아 엄마와 민아의 갈등 원인과 해소 생각, 말, 공감대

다은이의 대화 태도와 그에 따른 효과 눈, 고개, 진술한

다른 엄마가 공감하며 대화하기 위해 활용한 방법 관심, 재진술, 공유

기초가 튼튼해지는 소단원 다시잡기

51~53쪽

- 01 ②, ④ 02 민아의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였다. 03 ③ 04 ④ 05 ㉠: ㉡, ㉢: ㉣, ㉤: ㉥ 06 ⑤ 07 ④ 08 ③ 09 ⑤ 10 상대방의 문제점을 분석하거나 충고하려고 하지 않고 공감하기 위해 노력한다. / 자신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하지 않고 상대방의 처지와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 01 엄마는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민아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아 두 사람은 근본적으로 가치관의 차이가 있고, 서로를 배려하지 못하는 말과 행동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다.
- 02 (가)에서 엄마는 민아의 말을 끝까지 들어 보지 않고 민아가 하던 발표회 준비를 못 하게 하며 공부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 03 다은이는 민아의 어두운 표정과 축 치진 어깨를 주의 깊게 살핀 후 무슨 일이 있느냐며 먼저 말을 걸어 민아가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있다.
- 04 다은이는 민아의 표정과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민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진지한 자세로 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감하며 말하기를 하면 상대방이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해 준다고 느껴, 마음을 열고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게 된다.
- 06 민아는 엄마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한다고 하였고, 민아의 엄마는 뭐든지 말하면 도와주겠다고 하였으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 07 상대방의 처지나 생각을 이해하지 않고 상대방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 08 ③은 송이와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겠다는 유정이의 의지가 드러나는 말로, 상대방에게 공감하지 못한 말이라고 할 수 없다.
- 09 형진이가 경훈이의 의견을 무시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10 (나)에서 유정이는 힘들어하는 송이의 상황에 공감하지 못하고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충고하려다가 송이의 기분을 상하게 하였다. 공감하며 대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처지와 감정을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내용이 탄탄해지는 대단원 문제풀이

54~59쪽

- 01 ② 02 ④ 03 ③ 04 ⑤ 05 '바보', '정말', '너는 참 바보다.' 등을 반복함으로써 '너'의 행동을 본받고 싶은 '나'의 마음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06 ③ 07 ③ 08 ③ 09 ② 10 ④ 11 ⑤ 12 ④ 13 글쓴이는 사람들로부터 과묵하고 거만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으면서 침묵은 흉내가 아니라 존재의 평화로움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14 ⑤ 15 ⑤ 16 ⑤ 17 말보다 침묵으로 상대방을 더 잘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8 ④ 19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이 다른 것을 고려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는 말과 행동을 하였기 때문이다. 20 ② 21 ③ 22 고맙지만, 부담스럽다 23 ④ 24 ⑤

- 01** 1연에서는 화자인 ‘나’가 관찰한 ‘너’의 모습을 나열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며 2연에서는 ‘너’에 대한 ‘나’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02** 이 시의 화자인 ‘나’는 착하고 바르게 생활하는 ‘너’를 본받고 싶어 할 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는 않는다.
- 03** 이 시에서 ‘너’는 길가에 핀 흔한 꽃인 민들레를 한참 바라본다고 하였으므로 세심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는 드러나지 않았다.
- 오답 풀이** ① 얼굴에 검댕 칠을 한 연탄장수 아저씨에게 인사하고, 선생님과의 헤어짐을 서운해하며, 길가의 작은 꽃에도 관심을 가지는 모습에서 알 수 있다.
- ②, ⑤ 친구가 거짓으로 허풍을 떠는 말도 잘 들어 주고 놀리는 말에도 화내지 않고 웃는 모습에서 알 수 있다.
- ④ 쓰레기는 반드시 쓰레기통에 버리고 정해진 출입문인 교문을 이용하는 모습에서 알 수 있다.
- 04** ㉠(‘너는 참 바보다.’)은 ‘너’를 좋아하는 ‘나’가 ‘너’에게 ‘바보’라고 말하는 반어 표현을 쓴 것으로, ‘너’가 바르고 마음이 고운 아이이며, 닳고 싶은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한편, 대상을 비틀거나 비꼬아서 사회나 개인의 부정적인 모습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풍자 표현의 특징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05** 이 시는 특정 단어, 문장, 문장 구조 등을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너’에 대한 ‘나’의 마음을 더욱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 06** (가)의 시조는 ‘두꺼비(3) 파리를 물고(5) 두엄 위에(4) 치달아 앉아(5)’와 같이 3~5자의 일정한 글자 수를 반복하고, ‘두꺼비∨파리를 물고∨두엄 위에∨치달아 앉아’와 같이 일정한 음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07** (나)의 선생님 설명을 토대로 할 때, 백송골이 탐관오리도 무서워하는 더 힘이 있는 권력자들을 의미하는 것은 맞지만, 이들이 백성들을 위해 탐관오리를 벌주는 정의로운 계층인지 확인할 수 없다.
- 08** 반어 표현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반대로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허위 신고를 하지 말자는 의미를 전달하는 광고에서 ‘허위 신고 덕분에’라는 표현을 쓴 ㉢이 적절하다.
- 09** (가)와 (다)는 개인 또는 사회의 부정적 현상, 모순, 어리석음 등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기 위해 웃음을 사용하는 풍자 표현을 통해 대상의 부정적 측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내어 비판하고 있다.

- 10** 이 글은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 속에서 얻은 깨달음이나 생각 등을 진솔하게 표현한 수필이므로, 상상력을 더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내지는 않는다.
- 11** (가)에서 글쓴이가 인디언 노인들과 흥미 있는 대화를 주고 받으리라 기대했다는 것, (나)에서 그런 글쓴이에게 인디언들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가)에서 글쓴이가 미국의 인디언 축제에 참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② (나)에서 처음 만났을 때 먼저 침묵한 것은 글쓴이가 아닌 인디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나)에서 인디언들이 이방인의 침입을 부정 타는 일이라고 여긴다는 것은 글쓴이의 추측임을 알 수 있다.
- ④ 글쓴이가 어렸을 때 인디언들과 함께 살았는지는 이 글에 드러나지 않는다.
- 12** (다)에서 인디언들이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침묵하는 이유는 자기 앞에 있는 존재를 가장 잘 느끼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다.
- 13** (라)에서 글쓴이가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인디언의 행동을 흉내 내며 침묵하자 괴팍하고 거만한 사람이라는 평을 듣게 되었다는 것과, 이 경험을 통해 침묵은 흉내가 아니라 존재의 평화로움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14** (다)에서 라코타족은 불행한 상황에 처한 사람과 대화를 시작할 때 잠시 침묵하는 것이 진정한 예의라고 생각하는 것일 뿐, 아예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15** 글쓴이는 인디언들과 함께하면서 ‘너무 많이 말해’라는 이름을 얻고 그들의 언어 습관을 경험한 뒤, 자신의 언어 습관을 성찰한 것이다.
- 16** ㉠에는 겉보기에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중요한 사실이나 진리를 담은 역설 표현이 사용되었으며, 이 표현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바를 인상적으로 나타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17** ㉡은 인디언들이 ‘침묵’에 대해 생각하는 바를 인상적으로 나타낸 문장으로, 말보다는 침묵을 통해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하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18** (가)의 민아 엄마는 민아의 과제를 쓸데없는 일이라고 하였고, <보기>의 유정이는 자신의 입장에서 송이의 이야기를 판단하며 나무라고 있다. 즉,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이 처한 상황이나 감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협력적으로 소통하는 ‘공감하며 대화하기’를 하지 않은 것이다.



- 19 민아와 민아 엄마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대화했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한 것이다.
- 20 다은이는 평소와 다른 표정과 상태를 보이는 민아를 주의 깊게 살피며 왜 기운이 없는지 묻고 있으므로 민아를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1 민아의 고민을 듣고 상황을 이해한 다은이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엄마에게 서운한 것을 말하면 갈등이 풀어질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그러나 민아가 하지 말아야 행동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지는 않았다.
- 22 ‘엄마가 나한테 잘해 주는 건 정말 고마운데, 가끔은 너무…….’라는 대사에서 민아가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가끔은 엄마의 지나친 관심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3 민아 엄마는 다른 엄마와의 대화를 통해 민아에게 무엇이든 최고로 잘해 주고 싶어 했던 자신의 행동이 오히려 민아에게 스트레스가 되어 서로 갈등하게 되었음을 깨닫고 있다.
- 24 다은 엄마는 민아 엄마의 말에 집중하고 공감하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진심을 담아 조언해 주었지만, 민아 엄마의 대화 태도에 대해 지적하지는 않았다.

2 읽고 쓰는 즐거움

01. 과학자의 서재

단원 맛보기

62쪽

1 ② 2 ⑤ 3 (1) ○ (2) × (3) ○ (4) ×

- 1 책 읽기가 학업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학업 성적의 향상이 읽기의 가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 2 독서량, 독서 시간, 독서 태도, 독서 방법, 독서 경험 등을 돌아보면 바른 독서 습관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책을 빠르게 읽는 것과 바른 독서 습관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⑤는 읽기 생활을 점검하는 태도라고 볼 수 없다.

핵심 속삭

P. 63 빈둥거림, 재미, 호기심
 P. 65 태도, 행동, 변화
 P. 66 감성적, 지식, 정보, 정신세계
 P. 67 개미, 통나무, 사회 생물학

제대로 독해 & 문제로 확인

63~67쪽

1 ③ 2 ⑤ 3 ③ 4 글쓴이의 역할과 위치가 달라져서 색다른 감동을 느꼈기 때문에 5 ⑤ 6 ① 7 ③ 8 ⑤ 9 ④
 10 ④ 11 ④ 12 ④ 13 이타주의

- 1 글쓴이는 빈둥거리는 시간에 상상력이 자라날 수 있으므로 요즘 아이들에게도 빈둥거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2 글쓴이는 백과사전의 장점이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을 필요 없이 아무 쪽이나 펼쳐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 3 《사랑의 학교》에는 ‘친구와의 우정,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두터운 정, 부모님의 깊은 사랑, 어려움을 극복해 내는 의지, 바른 것을 지향하는 정의로운 마음’ 등이 들어 있다고 하였다.
- 4 글쓴이는 어린 시절에 감명 깊게 읽었던 《사랑의 학교》를 어른이 된 후에 다시 읽으며 읽는 내내 눈시울을 붉혔고 끝내는 흐느꼈다고 하면서, 자신의 역할과 위치가 달라져서 색다른 감동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였다.
- 5 글쓴이는 ‘좋은 책은 언제 읽어도 그때그때 새로운 감동을 주는 것이며, 그 사람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하였다.

- 6 글쓴이는 세계 동화 전집을 읽기 전에는 집에서든 시골에 가서든 밤늦게까지 무조건 몸으로 뛰어 놀기만 했다. 하지만 세계 동화 전집을 읽은 후에는 뛰놀 곳 천지인 시골에서도 혼자 가만히 있는 시간을 스스로 만들었다고 했다.
- 7 글쓴이는 세계 동화 전집을 읽은 덕분에 다른 아이들보다 성숙해질 수 있었다고 하였다.
- 8 글쓴이는 노벨 문학상 전집을 읽으며 배경이나 인물들의 성격, 사회적 상황, 문화 등이 달랐기 때문에 문학적 감수성을 키우는 것 외에 지적인 호기심도 채울 수 있었다고 하였다.
- 9 글쓴이는 노벨 문학상 전집을 읽고 다른 나라의 역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를 얻었으며, 그러는 동안 정신 세계도 훨씬 넓은 세계로 옮겨 갔다고 하였다.
- 10 글쓴이는 책 뒷부분에 실린 <모닥불과 개미>라는 반 쪽짜리 짧은 수필이 이토록 강렬한 인상을 남길 줄은 몰랐다고 하였다.
- 11 개미들은 좀처럼 불길을 피해 달아나려고 하지 않았으며 다시 통나무 주위에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통나무를 붙잡고 죽어 갔다고 하였다.
- 12 글쓴이는 <모닥불과 개미>를 읽으면서 이상하게 여긴 개미의 행동을 사회 생물학을 통해 이해하게 된 순간 이 학문을 평생 공부하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 13 타 죽을 것이 뻔한데도 불에 타고 있는 통나무를 붙잡고 죽어가는 개미들의 행동은 함께 모여 살았던 집을 구하기 위한 희생으로, 글쓴이는 사회 생물학을 공부하면서 이러한 재미로부터 '이타주의'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 사회 생물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타주의'라고 하였다.

이해와 탐구

68~69쪽

- 1 백과사전, 호기심, 창의적, 시인, 감수성, 지식, 정보, 개미, 생태학
2 동물 행동학자, 작가, 다양한 분야, 통섭형, 대중적 과학자

! 학습 활동 응용

68~69쪽

- 01 ③ 02 ② 03 ⑤ 04 ③ 05 ① 06 ①, ②
07 ②, ④

- 01 책을 읽으면 시간이 금방 간다는 것을 글쓴이가 알게 되었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 02 글쓴이는 문학이 아닌 동물 행동학과 생태학을 전공하였다고 하였으며, 글쓴이가 전공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친 작품은 세계 동화 전집이 아니라 <모닥불과 개미>이다.

- 03 글쓴이는 노벨 문학상 전집을 읽고 다른 나라의 역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를 얻게 되었고, 그러는 동안 글쓴이의 정신세계도 훨씬 넓은 세계로 옮겨 갔다고 하였다.
- 04 최재천 교수는 어렸을 때 집에 책이 많지 않아 가지고 있던 책을 읽고 또 읽었다고 했다.
- 05 최재천 교수가 말한 '통섭형 독서 습관'이란 한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는 습관을 말한다.
- 06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는 최재천 교수의 통섭형 독서 습관은 그가 글을 쓰고 대중적 과학자가 되는 데 밑바탕이 되었다.
- 07 ㉠은 책을 읽고 개미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고, ㉡은 책을 읽고 쉬운 일반 하려던 마음가짐을 바꾸어 도전 정신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소단원 마무리

70쪽

글의 개관 가치, 중요성, 읽기 경험, 가치, 시간

글의 짜임 백과사전, 호기심, 사랑의 학교, 지식, 정보, 사회 생물학, 진로

글쓴이의 읽기 경험 동물, 호기심, 태도, 행동, 색깔, 창의적, 감성, 감수성, 호기심, 넓은 세계, 개미, 사회 생물학, 가치관, 진로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 공감, 지적 호기심, 창의력, 가치관

기초가 튼튼해지는 소단원 다자검

71~73쪽

- 01 ② 02 ④ 03 ② 04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재미와 호기심을 느끼게 되었다. 05 ⑤ 06 ② 07 ③ 08 ③
09 ⑤ 10 ③ 11 ⑤ 12 ㉠(통섭형 독서 습관)은 글쓴이가 신문에 글을 연재하고 대중적 과학자가 되는 데 밑바탕이 되었다.

- 01 이 글은 인생과 사물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과 느낌을 일정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한 수필이다.
오답 풀이 ①은 시, ③은 논설문, ④는 희곡, ⑤는 소설에 대한 설명이다.
- 02 (가)에서 글쓴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시간에 상상력이 자란다고 하였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 보내기를 못 하는 요즘 아이들을 보면 매우 안타깝다고 하였다.
- 03 (라)에서 마당 가득 노을빛이 물들며 해가 질 때까지 백과사전을 읽는 모습을 볼 때, 글쓴이가 책을 읽는 재미에 깊이 빠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글쓴이는 '노는 데는 도가 텃지만 타고난 독서광은 아니었다.'라고 하였다.



③ (나)에서 글쓴이는 방 안에 드러누워 뒹굴다가 백과사전을 발견했다고 하였다.

④ (다)에서 글쓴이는 백과사전을 펼쳐 본 뒤로 그 책을 끼고 살았다고 했고, (라)에서 백과사전이 거의 너털너털해지도록 읽었다고 하였으므로 백과사전을 여러 번 읽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⑤ (다)에서 백과사전에 충전연색 사진까지 실려 있어 글쓴이가 더욱 흥미를 느끼고 있으며, 글만 읽는 책이 더 재미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는 (가)~(라)를 통해 알 수 없다.

04 (다)에서 글쓴이는 백과사전을 읽고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재미가 즐거움을 주었고, 사진을 통해 처음 본 신기한 동물들이 호기심을 자극했다고 하였다.

05 ㉠(《사랑의 학교》)은 글쓴이가 가장 감명 깊게 읽은 동화로, (나)에서 이 책은 주인공이 학교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관찰한 일기 형식의 글이라고 하였다.

06 (가)에서 글쓴이는 어른이 되어 《사랑의 학교》를 다시 읽어보며 흐느끼고 말았다고 했으며, (나)에서 글쓴이는 나이를 먹고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만들어 온 원칙이나 삶을 대하는 자세도 그 책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하였다.

07 (다)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모두 성장의 시기를 겪게 마련인데, 글쓴이는 동화 덕분에 다른 아이들보다 성숙해지고 생각의 폭도 넓어지고 깊이도 깊어졌다고 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사춘기를 아예 겪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 글에서도 그러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08 글쓴이는 ㉠(노벨상 문학 전집)을 읽으면서 다른 나라의 역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지식, 정보를 얻어 정신세계도 훨씬 넓어졌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라)에서 글쓴이는 노벨 문학상 전집을 읽고 정신세계가 훨씬 넓은 세계로 옮겨 갔다고 하였다.

② (라)에서 노벨 문학상 전집을 읽으면서 우리나라 작품과는 또 다른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였다.

④ (라)에서 노벨 문학상 전집은 배경이나 인물들의 성격, 사회적 상황, 문화 등이 달랐기 때문에 지적인 호기심도 채울 수 있다고 하였다.

⑤ (라)에서 글쓴이는 그전까지의 책 읽기가 감성적인 부분을 충족해 주었다면, 노벨 문학상 전집은 그와 더불어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를 얻게 해 주었다고 하였다.

09 (나)에서 글쓴이는 <모닥불과 재미>를 읽고 이해하지 못했던 재미의 이상한 행동을 훗날 유학을 가서 사회 생물학을 접했을 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고, 그리하여 사회 생물학을 평생 공부하기로 결정하였다.

10 이타주의란 사랑을 주의로 하고 질서를 기초로 하여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타인의 행복과 복리의 증가를 행위의 목적으로 하는 생각을 뜻한다. ‘왜 인간을 포함한 ~ 남을 돕

는 행동이 진화했을까?’와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에는 ‘이타주의’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1 (라)에서 최 교수는 언론에서 자신의 독서 습관을 ‘다양성’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이를 ‘통섭형 독서 습관’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하였다.

12 (라)의 마지막 문장에서 글쓴이의 현재 활동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데에는 독서가 밑바탕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02. 민재의 독서 일기

단원 맛보기

74쪽

1 ㉠ 2 (1) ○ (2) × 3 속담 4 ㉡

1 읽기를 생활화하는 활동으로는 아침 독서, 독서 동아리, 독서 기행, 독서 신문 만들기 등이 있다. 그러나 영화를 보고 감상문을 쓰는 것은 읽기를 생활화하는 활동과는 관련이 없다.

2 관용 표현은 둘 이상의 낱말이 합쳐져 원래의 뜻과는 다른 특별한 뜻을 나타내는 말로, 각 낱말이 가진 원래 의미만으로는 관용 표현 전체 의미를 알 수 없다.

3 예로부터 사람들 사이에 전해져 오며 생활 체험에서 얻어진 생각과 교훈을 담은 말은 속담이다.

4 글의 내용을 늘리는 것은 다양한 표현을 활용하여 글을 쓰는 효과로 볼 수 없다.

이해와 탐구

75~82쪽

[아침 독서] (1) 관심 분야, 책 (2) 아침 독서

[독서 동아리] (1) 토론, 공공 도서관, 기행 (2) 이해, 확장

[독서 기행] (1) 여행, 다른 작품, 배경지식 (2) 생애, 작품 세계

[독서 신문 만들기] (1) 고민, 꿈

1 독서 동아리, 독서 신문 2 독서 습관

3 (1) 길, 송곳 (2) 정의, 속담, 전환 4 관심, 기억, 효과적, 언어생활

5 정성, 방향, 깨달음

핵심 속삭

P. 75 시간, 교과 수업

P. 76 오감도, 오감, 기행, 책

P. 77 독서 퀴즈 대회, 사진, 자연, 감상, 여행

P. 79 속담, 참신한, 자신

! 학습 활동 응용

75~82쪽

01 ④ 02 ② 03 ⑤ 04 ⑤ 05 ③ 06 ② 07 ③
 08 ② 09 ⑤ 10 《과학자의 서재》 11 ② 12 ⑤ 13 ⑤
 14 ⑤ 15 ④ 16 ④ 17 산 넘어 산이다. 18 ⑤ 19 ①
 20 ③, ④ 21 ①, ② 22 ⑤ 23 ① 24 ② 25 ②
 26 ⑤

- 01 담임 선생님은 자신의 관심 분야와 교과 수업과 관련한 책을 읽으라고 한 것이지, 꼭 국어 수업과 관련된 책만 골라서 읽으라고 한 것은 아니다.
- 02 독서 활동을 좋아하지 않는 민재는 아침에 독서 활동을 하자는 선생님의 말씀이 청천벽력(靑天霹靂: 뜻밖에 일어난 큰 변고나 사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같이 느껴졌다고 하였다.
- 03 한 해 동안 기록한 독서 감상문을 모아 책으로 만드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독서 활동이지만, 일정한 시간을 정해 규칙적이고 꾸준히 책을 읽는 활동과는 거리가 멀다.
- 04 민재는 독서 동아리 모임에서 하게 될 활동 계획을 들은 후, 깊은 늪에 빠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였다.
- 05 동아리 회장이 발표한 일 년 동안의 활동 계획에 따르면 독서 토론, 서점과 공공 도서관 방문, 독서 기행, 독서 캠프, 나만의 책 쓰기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인쇄소를 방문하는 활동은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 06 책을 혼자 읽는 것보다 여러 사람과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면, 다른 사람의 생각도 들을 수 있어 스스로의 생각을 확장할 수 있으며,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깨닫게 되는 등 책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 07 민재는 가는 길에 버스 안에서 독서 퀴즈 대회가 열려 '퀴즈를 풀다 보니 어느새 소나기 마을에 도착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가는 동안 지루해서 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다고 볼 수 없다.
- 08 민재는 독서 기행을 하면서 책을 읽고 여행하는 것이 흥미로운 일임을 깨달았다고 하였다. 책을 읽는 것보다 직접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은 이 글에 나타나지 않는다.
- 09 독서 기행을 떠나면 그 작가의 생애와 작품 세계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독서 기행은 작가와 비슷한 분위기의 작품을 창작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 10 '우리 모듬은 책 《과학자의 서재》를 함께 읽고 독서 신문을 만들었다.'라고 하였다.
- 11 선생님께서는 속담, 관용 표현, 격언과 명언, 참신한 표현 등을 활용해 재미있는 독서 신문을 만들어 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유행어'는 언급하지 않았다.
- 12 민재의 독서 감상문을 보면 글쓴이는 어린 시절부터 과학자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시인, 조각가 등 다양한 꿈을 꾸었다고 하였다.
- 13 '자루 속의 송곳'은 '아무리 숨기려 하여도 숨길 수 없고 그 정체가 드러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이다.
- 14 민재는 관용 표현, 속담, 격언과 명언, 참신한 표현 등을 써서 생각과 느낌, 경험을 인상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 15 관용 표현은 둘 이상의 낱말이 합쳐져 원래의 뜻과는 다른 특별한 뜻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의 '머리를 맞대다.'는 실제로 머리를 맞대는 것이 아닌 '어떤 일을 의논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서로 마주 대하다.'라는 뜻의 관용 표현이다.
- 16 민재는 독서 신문 전시회를 마치고 두꺼운 책이라도 읽을 자신이 생겼다고 말했을 뿐, 다양한 글을 읽고 새로운 작품을 창작해야겠다고 다짐하지는 않았다.
- 17 민재는 이제 겨우 책 읽기에 자신이 붙었는데 다양한 글을 써서 나만의 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에 '갈수록 더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됨.'을 나타내는 속담인 '산 넘어 산이다'를 써서 말하고 있다.
- 18 민재가 학교 도서관에 책을 기증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 19 인터넷 검색을 한 경험은 독서 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친구들에게 소개할 만한 읽기 경험으로 적절하지 않다.
- 20 <보기>에서는 시간을 정해 놓고 책을 읽는 경험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읽기 경험을 통한 변화로 친구들과 사이가 좋아진대거나 수업 시간에 집중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21 <보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관용 표현으로 ①과 ②가 이에 해당한다.
- 22 <보기>의 표현은 읽은 책과 관련된 내용으로 서재를 다시 정의하여 책의 내용을 잘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참신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 23 다양한 표현을 활용하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따라서 문장을 길게 쓰는 것은 다양한 표현을 활용하여 글을 썼을 때의 효과로 볼 수 없다.
- 24 빈칸에는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한 일은 그 결과가 반드시 헛되지 아니하다.'라는 뜻의 속담이 어울린다.



교과서 학습편

오답 풀이 ① 티끌 모아 태산: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모이고 모이면 나중에 큰 덩어리가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③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평소에 흔하던 것도 막상 긴하게 쓰려고 구하면 없다는 말이다.

④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도 다듬고 정리하여 쓸모 있게 만들어 놓아야 값어치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⑤ 벼 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교양이 있고 수양을 쌓은 사람일수록 겸손하고 남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25 <보기>의 글쓴이는 민재네 독서 신문을 읽고, '책 속에 길이 있다'라는 명언을 활용하여 자신의 느낌을 표현한 것으로 보아 ②와 같이 느꼈음을 알 수 있다.

26 독서 신문으로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은 글 외에도 그림, 만화, 만평 등으로 다양하며, 책의 내용을 빠짐없이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 형식에 맞게 요약하여 구성해야 한다.

소단원 마무리

83쪽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독서 활동 교과, 관심 분야, 정서적, 동아리

'민재의 독서 일기'에 나타난 독서 활동과 그 효과 시간, 독서 기행, 흥미, 언어 표현, 생활화

'민재네 모듬의 독서 신문'에 나타난 다양한 표현 관용 표현, 생활, 교훈, 경계, 의미

다양한 표현을 활용한 효과 관심, 기억, 효과적, 언어생활

기초가 튼튼해지는 소단원 다잡기

84~85쪽

01 ④ **02** ① **03** ⑤ **04** ④ **05** ⑤ **06** 머리를 맞대고
07 ① **08** 무슨 일든 시작하기가 어렵지 일단 시작하면 일을 끝마치기는 그리 어렵지 않으므로 아무리 두꺼운 책이라도 읽을 수 있다.

01 (다)에서 민재는 독서 기행을 가는 길에 버스 안에서 독서 퀴즈 대회가 열렸는데, 퀴즈를 풀다 보니 어느새 소나기 마에 도착했다고 하였으므로 퀴즈에 재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02 공부하다가 머리를 식힐 겸 때때로 책을 읽는 것은, (가)의 아침 독서와 같이 일정하고 꾸준한 읽기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03 민재는 책을 읽고 여행을 하는 것이 흥미롭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이로 인해 작품을 더 깊이 이해했다고 하였으므로 관련된 책을 꼭 읽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다.

04 (다)에서 <개미>를 같이 읽자고 한 사람은 마음이가 아니라

'민재'이다. 또한, 민재가 '산 넘어 산'이라고 한 것은 이제부터 다양한 글을 써서 나만의 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난 뒤의 일이다.

05 참신한 표현은 '창의적 발상(㉠)'을 바탕으로 한 표현이다.

오답 풀이 ① ㉠: 관용 표현, ② ㉡: 속담, ③ ㉢: 격언, ④ ㉣: 명언이다.

06 둘 이상의 낱말이 합쳐져 원래의 뜻과는 다른 특별한 뜻을 나타내는 것이 관용 표현이므로, <보기>의 뜻으로 쓰인 것을 (다)에서 찾으면 '머리를 맞대고'가 적절하다.

07 글을 쓸 때 다양한 표현을 쓴다고 해서 독자의 연령층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지식수준이 낮은 어린 연령층은 다양한 표현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므로 다양한 표현을 쓴 효과라고 보기 어렵다.

08 민재는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을 활용하여 두꺼운 책도 읽을 자신이 있다는 마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내용이 탄탄해지는 소단원 마무리

86~91쪽

01 ③ **02** ⑤ **03** ③ **04**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즐거움과 호기심을 느끼게 되었다. **05** ② **06** ⑤ **07** ③ **08** ⑤
09 ④ **10** 글쓴이가 궁금해했던 <모닥불과 개미> 속 개미의 행동에 대해 대답해 주었기 때문이다. **11** ② **12** ⑤ **13** ② **14** ⑤
15 ④ **16** ② **17** '한 우물만 파지 마라', 어떠한 일든 한 가지 일을 끝까지 하여야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의 속담(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을 반대로 표현하는 발상의 전환으로 다양한 분야에 도전해 보라는 의미를 참신하게 전달하고 있다. **18** ② **19** ③
20 ①

01 글쓴이는 자신에게 영향을 주었던 책들에 대해 시간 순서대로 소개하고 있다.

02 (라)에서 글쓴이는 백과사전을 읽다 보면 노을빛이 물들곤 했다고 하였다. 즉, 해가 질 때까지 책 읽는 재미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글쓴이는 타고난 독서광은 아니었다고 하였다. ② (가)에서 글쓴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에 우리 영혼과 가슴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만들어 낼 발을 일굴 수 있다며 '빈둥거리는 것 역시 필요하고 좋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하였다.

③ (가)~(라)에서 어머니께서 글쓴이를 위해 백과사전을 사다 주셨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알 수 없는 내용이다.

④ (나)에서 글쓴이가 어렸을 때에는 교과서 외에 읽을 만한 책도 그다지 없었다고 하였다.

03 (나)에서 글쓴이는 방 안에 드러누워 뒹굴고 있다가 백과사전이 눈에 띄어 읽게 되었다고 하였다.

- 04 (다)에서 글쓴이는 백과사전을 펼쳐 본 뒤부터 책을 끼고 살며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재미가 생각지도 못한 즐거움을 선사’했고, ‘사진을 통해 처음 본 신기한 동물들이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다고 하였다.
- 05 (가)에서 글쓴이는 어렸을 때 《사랑의 학교》 이야기를 무척 좋아하면서도 울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 06 글쓴이가 우리나라 작품과는 또 다른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었던 책은 ‘세계 동화 전집’이 아니라 ‘노벨 문학상 전집’이다.
- 07 (마)에서 노벨 문학상 전집을 읽고 글쓴이의 ‘정신세계도 훨씬 넓은 세계로 옮겨 갔다.’라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노벨 문학상 전집을 읽고 글쓴이가 시보다 소설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는지는 이 글에서 언급되지 않아 알 수 없다.
 ② (마)에서 글쓴이는 ‘그전까지의 책 읽기가 감성적인 부분을 건드리고 충족해 주었다’라고 하였다.
 ④ (마)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역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라)에서 ‘문학적 감수성을 키우는 것 외에 지적인 호기심도 채울 수 있었다’라고 하였다.
- 08 글쓴이는 솔제니친의 수필인 〈모닥불과 개미〉를 읽고 개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훗날 미국 유학을 가서 접한 사회 생물학을 통하여 그 답을 찾게 되었다고 하였다.
- 09 (다)에서 글쓴이는 〈모닥불과 개미〉를 읽고 가까스로 불길을 피한 개미들이 다시 불붙은 통나무 주위에 모여들어 그대로 죽어 가는 이유를 궁금해하였다.
- 10 글쓴이가 가지고 있던 〈모닥불과 개미〉 속의 개미의 행동에 대한 수수께끼를 훗날 접한 사회 생물학이라는 학문을 통해 풀게 되었고, 개미들을 이해하게 된 순간 글쓴이는 사회 생물학을 평생 공부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 11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며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는 활동은 (나)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 12 (다)에서 민재는 소나기 마을로 독서 기행을 가서 소설 속 등장인물의 모습을 흉내 내 보기도 하고, 장면을 재연해 보는 등의 활동을 통해 소설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을 소설 속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는 과정으로 볼 수 없으며,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민재가 깨닫는 부분 또한 찾을 수 없다.
- 13 이 글의 맥락상 ㉠에 들어갈 말로는 배경지식을 알고 대상을 대할 때 더욱 자세하고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아는 만큼 보인다.’가 적절하다.

- 14 (가)에서 선생님께서는 다양한 표현을 활용해 독서 신문을 만들어 보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민재는 (나)에서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라는 속담을 변형하고, ‘이 세상에 쓸모없는 꿈은 없다.’는 글쓴이의 격언을 인용하였다. 제목으로 6행시를 지은 중호는 ‘자루 속의 송곳’이라는 속담을 활용하였다.
- 15 (나)에서 《과학자의 서재》의 글쓴이 또한 어린 시절부터 과학자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시인, 조각가 등 다양한 꿈을 꾸었다고 하였다.
- 16 ‘자루 속의 송곳’은 아무리 숨기려 하여도 숨길 수 없고 그 정체가 드러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이다.
- 17 참신한 표현은 무심코 지나쳤던 것을 새롭게 해석해서 새로운 의미나 가치를 발견하여 인상 깊게 나타난 표현을 말한다. 민재는 속담을 반대로 표현하는 창의적 발상으로 새로운 의미를 참신하게 전달하고 있다.
- 18 (나)의 동아리 활동에 ‘공공 도서관 방문’이 언급되었으나 이때의 도서관 방문 목적은 책 읽기에 있으므로 시험을 앞두고 교과서로 공부하는 것은 독서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 19 독서 활동을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이러한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비밀을 공유하는 것은 독서 활동의 효과로 보기 어렵다.
- 20 ㉠ 앞의 내용으로 볼 때, 두꺼운 책을 읽는 것은 시작하기가 어렵지 일단 시작하면 책을 읽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뜻의 속담이 ㉠에 들어가야 한다. 여기에 〈보기〉의 뜻으로 쓰인 속담을 고르면 ①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② 산 넘어 산이다.: 갈수록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③ 공든 탑이 무너지랴.: 공들여 쌓은 탑은 무너지리 없다는 뜻으로,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한 일은 그 결과가 반드시 헛되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④ 산 입에 거미줄 치랴.: 아무리 살림이 어려워 식량이 떨어져도 사람은 그럭저럭 죽지 않고 먹고 살아가기 마련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뵈나.: 외부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오래전부터 있던 사람을 내쫓거나 해치려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3 소통하는 우리

01. 핵심이 드러나는 발표

단원 맛보기

94쪽

1 (1) ○ (2) × 2 ⑤ 3 ④ 4 ㉠ 흥미, ㉡ 주의, ㉢ 기억

- 2 발표를 할 때는 청중에게 예의를 지키되, 발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준언어·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 3 발표 내용을 선정할 때와 같이 매체 자료를 선정할 때도 신뢰할 만한 출처의 자료인지 확인해야 한다.
- 4 매체 자료를 활용하면 청중의 흥미를 끌고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으며, 청중이 발표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다.

이해와 탐구

95~105쪽

[발표 계획하기] 스트레스, 관리 방법

[발표 내용 선정하기] 나, 주제, 관련

[발표 내용 구성하기] 1 관리 방법 2 사진, 인터뷰, 흥미, 관심

[발표하기] 1 (1) 내용, 상황, 주의, 흥미, 발표 내용, 도움, 한눈, 내용 이해, 내용, 흥미 (2) 한눈 2 스트레스

핵심 목록

- P. 95 관심사, 목적, 주제
- P. 97 청중, 목적, 주제, 주제, 출처
- P. 98 목적, 도입, 전개, 정리, 순서, 매체 자료, 관심
- P. 99 자기소개, 스트레스, 해소, 실태, 영향
- P. 100 일주일, 우리 학교, 이상
- P. 101 학업 문제, 두통, 성장 호르몬, 우울증, 일탈 행동
- P. 103 부정적, 관리 방법, 활력, 대화, 운동, 취미 생활
- P. 104 요약, 관리 방법, 헬렌 켈러, 당부, 출처

! 학습 활동 응용

95~105쪽

- 01 ② 02 ③ 03 ② 04 ③ 05 ③ 06 ①, ⑤
- 07 나 08 ② 09 ① 10 전개 11 ②, ③ 12 매체
- 자료 13 ③ 14 ② 15 ㄱ, ㄴ 16 ⑤ 17 ⑤
- 18 ③, ⑤ 19 스트레스 20 ㄱ - ㄴ - ㄷ - ㄹ 21 ②
- 22 ③ 23 ② 24 ⑤ 25 ① 26 ⑤ 27 ①, ④
- 28 ④ 29 ⑤ 30 ③ 31 ⑤ 32 ④ 33 ④ 34 ④
- 35 (1) 상황 (2) 주의 (3) 내용 36 ② 37 ⑤ 38 많은 정보
- 들이 한눈에 들어와서 내용을 파악하기 쉽다. 39 ⑤

- 01 지아네 모듬은 다음 주 국어 시간에 반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기로 해서 발표 주제를 정하려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02 발표 계획을 세울 때에는 발표 주제와 목적을 정하고, 예상 청중의 상황과 관심사, 지식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발표 순서에 대한 것은 언급하지 않았다.
- 03 지아네 모듬은 토의를 통해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발표 주제로 정하였다.
- 04 지아네 모듬은 지난 시험 때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들이 많았던 것을 떠올리고 발표 주제를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관리 방법’으로 정하였다.
- 05 지아네 모듬이 발표할 내용을 정하면서 나눈 토의 내용을 보면, 스트레스의 사전적 의미는 조사할 내용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 06 지아네 모듬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기로 했고, 신문이나 잡지의 기사와 관련 책도 찾아보았다.
- 07 나 는 고열량 위주의 식습관과 운동 부족으로 인해 청소년 비만이 늘고 있다는 기사로, 지아네 모듬에서 발표하려는 주제와 연관성이 떨어진다.
- 08 나 의 청소년 비만 문제 관련 기사는 발표 주제인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관리 방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적절한 자료라고 볼 수 없다.
- 09 ‘어떻게 하면 발표에서 이 내용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지아의 말에서 발표 내용을 구성하는 까닭을 알 수 있다.
- 10 제시된 ‘발표 개요 구성안’을 참고할 때 ‘도입-전개-정리’ 단계 중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것은 ‘전개’ 단계에 해당한다.
- 11 조사한 내용을 모두 말하는 것보다는 핵심 정보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자료의 출처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언급하지 않았다.
- 12 ‘매체 자료는 친구들의 관심도 끌고, 내용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주니까’라는 지아의 말에서 빈칸에 들어갈 말이 매체 자료임을 알 수 있다.
- 13 주제 설정의 필요성은 발표 계획하기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발표 개요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내용이 아니다.
- 14 발표 주제가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관리 방법’임을 고려할 때 전개 단계의 ④에는 청소년 스트레스의 관리 방법에 대해 발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 15 스트레스의 뜻을 정리한 백과사전의 표(ㄷ)는 친구들의 경

힘을 소개하거나 발표 주제 및 순서 등을 안내해야 하는 도입 단계에는 적절하지 않은 자료이다.

- 16 발표의 도입 단계에서 매체 자료를 활용하면 청중의 흥미를 끌고,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다.
- 17 지아네 모듬은 반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한다고 하였다.
- 18 발표를 할 때는 바른 자세로 서서 해야 하고, 청중들이 잘 들을 수 있는 큰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좋다.
- 19 발표의 배경을 설명하며 지난달 시험 기간에 스트레스를 받아 힘들어하는 친구가 많았지만 친구들 대부분이 스트레스가 쌓이는 걸 걱정할 뿐,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을 제시하였다.
- 20 먼저 청소년 스트레스의 실태와 스트레스 원인을 알아보고, 그 다음으로 스트레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 준다고 하였다.
- 21 (가)는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담은 사진으로 청중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관심을 끄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진 속의 인물들이 반 친구인지는 알 수 없으며,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지도 알 수 없다.
- 22 청중들이 질문을 하고 지아가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다. 지아는 청중의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 청중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들은 뒤에 발표 내용을 이어 가고 있다.
- 23 지아네 모듬에서 진행한 설문 조사는 우리 학교 학생 약 1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 24 불안감과 우울증은 스트레스 원인이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해 청소년에게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이상 증상에 해당한다.
- 25 지아는 발표 자료로 준비한 매체 자료가 잘 보이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청중의 경험을 묻는 질문 등을 하고,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발표를 원만하게 진행하고 있다.
- 26 지아의 발표에서는 스트레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신체적, 심리적 이상 증상 등을 제시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언급했을 뿐, 스트레스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27 발표자가 특정한 순간에 목소리를 높이면 청중의 주의를 끄는 동시에 말하려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임을 강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28 지아는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찾아 실천해야 한다고 하였다.
- 29 고민이나 감정을 속에 쌓아 두면 마음의 병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친구나 가족, 선생님과 나누며 해결책을 찾거나 위안을 받으라고 권하고 있다.

- 30 꼭 힘든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하였으며,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 31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건전한 취미 생활을 제안한 근거는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꾸준히 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능력이 높다는 조사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 32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 취미 생활을 통해 스트레스를 푸는 학생들의 실제 모습을 보며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 33 발표한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핵심 정보를 다시 한번 전달하고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 34 청중의 듣기 태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 35 매체 자료는 발표 내용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므로 발표 상황에 맞는지, 청중의 주의를 끌었는지, 청중이 발표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
- 36 <보기>의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매체 자료는 ② ‘설문 조사 결과를 나타낸 도표’가 적절하다.
- 37 스트레스의 양면성을 그림으로 표현한 시각 자료를 통해 발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38 설문 조사 결과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해당 목록과 수치 등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다.
- 39 발표 주제가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관리 방법’이므로, 다른 나라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실태를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소단원 마무리

106쪽

지아네 모듬의 발표 과정 관심사, 정보 전달, 관리 방법, 주제, 도입, 전개, 정리, 순서, 당부, 매체 자료, 예절, 준언어적, 비언어적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게 내용을 구성하여 발표하는 방법 요약, 매체 자료
 매체 자료의 종류와 활용 효과 시각, 음악, 동영상, 흥미, 이해

기초가 튼튼해지는 소단원 다잡기

107~111쪽

- | | | |
|---|------|-----------------------------|
| 01 ① 발표 계획하기, ④ 발표 내용 선정하기 | 02 ③ | 03 ⑤ |
| 04 발표 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을 선정해야 한다. | 05 ③ | |
| 06 ① 07 ③ 08 ⑤ 09 ③ 10 ① 11 청소년들이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 12 ② | 13 청중의 주의를 끌고 내용을 강조할 수 있다. |
| 14 ④ 15 ③ 16 ③ 17 ⑤ | | |
| 18 발표의 핵심 내용을 청중이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이다. | | |

- 01 (가)는 예상 청중을 분석하고, 발표 목적과 발표 주제를 정하는 ‘발표 계획하기’ 과정이고, (나)는 발표할 내용을 조사



하고, 주제와 관련 있는 내용을 선정하는 ‘발표 내용 선정하기’ 과정이다.

- 02** (가)는 예상 청중을 분석하고 발표 목적을 고려하여 발표 주제를 정하는 발표 계획하기 과정으로, 발표 내용을 평가하는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 03** 자료 **가**만 설문 조사를 하여 얻은 결과이다. 자료 **나**와 **다**는 뉴스 기사, 자료 **라**는 책에서 수집한 조사 내용이다.
- 04** 발표 내용을 선정할 때는 발표 주제인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관리 방법’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으로 선정해야 한다. 또한 발표 목적에 알맞은 정보인지 고려해야 한다.
- 05** (가)와 (나)는 ‘발표 내용 구성하기’ 과정으로, 발표 내용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발표 내용의 조사 방법을 정하는 것은 ‘발표 내용 구성하기’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소로 볼 수 없다.
- 06** ‘발표 내용 구성하기’ 과정에서는 발표 내용에 적절한 매체 자료를 정해야 하는데, 이때는 청중이 발표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선정해야 한다.
- 오답 풀이** ② 발표 순서를 안내하는 것은 발표하기의 ‘도입’ 단계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③ 조사한 내용을 가능한 많이 제시하거나 유용한 정보를 전부 제공하기보다는 핵심 정보만 선별하여야 청중이 발표에 관심을 가지고 발표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다.
- ④ 도입 - 전개 - 정리 단계에 따라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야 발표 내용을 청중에게 잘 전달할 수 있다.
- ⑤ 매체 자료를 선정할 때는 발표 주제에 맞는 것을 골라야 청중들이 발표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07** 자료를 찾는 순서가 아니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순서를 정해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 08** (가)는 발표의 도입 단계로 인사 및 자기소개, 발표 배경 및 주제 소개, 발표 순서 등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참고 자료의 출처는 제시하지 않았다.
- 09** 발표자는 청중에게 예의를 갖춘 태도로 준언어·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며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발표자가 발표를 듣는 청중의 태도를 평가하지는 않았다.
- 10** ①의 사진은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청중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제시한 자료이므로, 발표 순서를 안내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11**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나)에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약 100명 중 절반 이상의 청소년들이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음을 알 수 있다.

- 12** (다)에서 스트레스는 신체적·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적절하게 관리하면 우리 삶에 활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다)에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먼저 자기 스스로 스트레스를 좋은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고 하였다.

③ (가)에서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은 학업 문제라고 하였다.

④ (라)에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주변 사람들과 충분히 대화하는 것을 소개하며, 스트레스가 심할 경우에 전문가 상담 프로그램인 ‘위(Wee)클래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⑤ (나)에서 청소년의 과도한 스트레스는 성장 호르몬을 억제하여 성장을 방해한다고 하였다.

- 13** ①은 언어적 표현과 함께 이루어지는 음성적 효과인 준언어적 표현으로 발표자가 이처럼 목소리를 높이면 청중의 주의를 끌고 지금 말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임을 강조할 수 있다.
- 14** ⑥는 과도한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독이 될 수도 있지만,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관리하면 우리 삶에 활력을 주어 약이 될 수도 있다는 (다)의 발표 내용을 시각 자료를 통해 잘 보여 준 것으로 스트레스의 관리 방법을 항목화하여 제시한 것이 아니다.
- 15** ㉠은 건전한 취미 생활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한 학교의 사례를 보여 주는 동영상으로 시청각 자료에 해당한다.
- 16** 청소년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소개하며 다른 친구들의 취미 생활을 담은 동영상 자료를 보여 주고 내용 이해를 도운 것이지, ‘동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을 늘리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 17** 발표에서 활용한 매체 자료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①~④이다. 발표 모둠원들의 모습이 담겨 있는지의 여부는 판단 기준과 관련이 없다.
- 18** (나)는 발표의 정리 단계로, 이 단계에서는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당부의 말을 전한다. 즉, 발표자는 이 발표의 핵심 내용을 한 번 더 말함으로써 청중이 그 내용을 기억하도록 한 것이다.

02. 한글의 창제 원리와 특성

단원 맛보기

112쪽

- 1** (1) ○ (2) × (3) ○ **2** ㉠ 발음 기관, ㉡ 획 **3** ㉠ 하늘, ㉡ 땅, ㉢ 사람 **4** 한글은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릿값을 가진다.

- 2** 한글의 자음 기본자는 발음 기관 모양을 본뜬 상형의 원리로, ‘ㄱ, ㄷ, ㄷ, ㅂ, ㅍ, ㅈ, ㅊ, ㅎ’은 기본자에 획을 더

하는 가획의 원리로 만들었다.

- 3 한글의 모음의 기본자는 ‘하늘(天), 땅(地), 사람(人)’ 즉, 자연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 4 영어 알파벳은 하나의 글자가 단어에 따라서 다양하게 발음되지만 한글은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릿값을 가진다.

핵심 속독

- P. 113 한자, 글자
P. 114 상형, ㄱ, ㄴ,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P. 116 상형, 자연, 합성, 모음 기본자
P. 117 글자 수, 체계적, 가획, 발음, 소릿값, 음절, 모아쓰기

113~119쪽

! 학습 활동 응용

- 01 ③ 02 ④ 03 ① 04 ④ 05 ③ 06 ①
07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08 ‘ㄱ’에 획을 더하여 만들었다. 09 ⑤ 10 이미 만든 글자인 ‘ㄱ, ㄴ,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을 옆으로 나란히 써서 만들었다. 11 ⑤ 12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
13 ④ 14 ㅅ, ㅈ, ㅊ, ㅋ, ㆁ 15 ⑤ 16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
17 ④ 18 ⑤ 19 한글은 비슷한 소리가 나는 ‘ㄱ’과 ‘ㅋ’의 모양이 서로 비슷한 반면, 영어 알파벳은 비슷한 소리가 나도 ‘g’와 ‘k’처럼 모양이 각기 다르다. 20 (1) 우 (2) 우 (3) 우 21 한글은 하나의 문자가 하나의 소리를 낸다. 22 (가)는 자음자와 모음자를 늘어놓는 ‘풀어쓰기’ 방식이고, (나)는 자음자와 모음자를 음절 단위로 서로 결합하는 ‘모아쓰기’ 방식이다. 23 ⑤ 24 ② 25 입력이 쉽고 빠르다. 26 합성의 원리 27 가획의 원리

- 01 글자를 몰라도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가능했다.
- 02 세종 대왕은 중국의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을 쓰고 있으나, 한자는 배우기 어렵고 우리말과 다르기 때문에 백성들이 글자를 읽고 쓰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백성들도 쉽게 익혀 편히 쓸 수 있도록 한글을 창제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⑤ 세종 대왕은 중국의 한자를 빌려 쓰고 있어 백성들이 문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고, 백성들이 쉽게 익힐 수 있는 새로운 글자인 한글을 창제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한자와 비슷해야 한다거나 한자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것은 한글을 창제할 때 고려한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다.
- 03 한글 창제에는 한자를 빌려 쓰지 않고 우리말에 맞는 글자를 만들겠다는 ‘자주 정신’, 백성들의 불편함을 안타깝게 여긴 ‘애민 정신’, 글자를 쉽게 배워 편히 사용하게 하려는 ‘실용 정신’이 담겨 있다.
- 04 위장은 발음 기관이 아니라 소화 기관이다.
- 05 ‘ㄱ’은 입술(입)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이다.

- 06 ②의 입술(입) 모양을 본뜬 것은 ‘ㄱ’, ③의 목구멍 모양을 본뜬 것은 ‘ㅇ’, ④의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뜬 것은 ‘ㄴ’, ⑤의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것은 ‘ㄹ’을 만든 원리이다.
- 07 <보기>에 제시된 자음 기본자는 다른 자음자를 만드는 데 기본이 되는 글자로 상형의 원리에 따라 만들었다.
- 08 ‘ㄱ’보다 소리가 거세게 발음되는 ‘ㅋ’은 자음 기본자 ‘ㄱ’에 획을 더하는 가획의 원리에 따라 만들었다.
- 09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은 이미 만든 글자를 옆으로 나란히 쓰는 병서의 원리에 따라 만든 글자인 반면 ‘ㅎ’은 기본자에 획을 더하는 가획의 원리에 따라 만든 글자이다.
- 10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은 이미 만든 글자를 옆으로 나란히 붙여 쓰는 병서의 원리에 의해 만든 것이다.
- 11 ‘ㄹ’은 이체자로 기본자 ‘ㄱ’과 ‘ㄴ’을 합성하여 만든 것이 아니다.
- 12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은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모음 기본자이다.
- 13 ‘ㄴ’은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이다.
오답 풀이 ① ‘땅’의 평평한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는 ‘ㅡ’이다. ③ ‘하늘’의 둥근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는 ‘ㅇ’이다.
- 14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은 모음 기본자인 ‘ㅡ, ㅣ’에 모음 기본자인 ‘ㄴ’을 한 번 합하여 만들었다.
- 15 ‘ㄴ’은 상형의 원리에 따라 만든 모음 기본자이고, 나머지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은 모음 기본자 ‘ㅡ, ㅣ’에 ‘ㄴ’을 한 번 합하는 합성의 원리에 따라 만든 글자이다.
- 16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은 ‘ㄴ’과 ‘ㅇ’에 모음 기본자 ‘ㅡ’를 한 번 더 합하여 만든 것이다.
- 17 한글은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릿값을 가지기 때문에 ‘ㅇ’은 항상 [오]로 발음한다.
오답 풀이 ① ‘ㄱ’보다 ‘ㅋ’의 발음이 더 거세다. ② 한글 자음의 기본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이다. ③ ‘ㄱ’과 ‘ㄴ’은 모양도 비슷하고, 발음의 위치도 비슷하다. ⑤ 한글은 40개의 적은 문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5만 개 이상의 한자와 대문자 소문자를 합해 50여 개인 로마자 알파벳보다 더 적다.
- 18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는 자음 기본자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모음 기본자는 자연의 모양(하늘, 땅, 사람)을 본떠서 만들었다.
- 19 ‘ㅋ’은 자음 기본자인 ‘ㄱ’에 소리의 세기에 따라 획을 더하여 만든 글자로, 한글 자음자는 가획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져 글자 모양이 비슷하면 발음도 비슷하다. 반면 영어 알파벳은 ‘g’와 ‘k’처럼 소리가 비슷하더라도 글자의 모양이 각



교과서 학습편

기 다르다.

- 20** 한글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문자가 하나의 소리를 내기 때문에 ‘ㄱ’은 어떤 단어에 쓰이더라도 똑같이 [우]로 발음된다.
- 21** 영어 알파벳 ‘a’가 각각의 단어에서 [아], [에이], [어]와 같이 다양한 소리를 내는 데 반해, 한글 ‘ㅏ’는 어떤 단어에 쓰이더라도 [아] 하나의 소리를 낸다.
- 22** (가)는 자음자와 모음자를 가로로 나란히 배열하여 풀어쓰는 방식이고, (나)는 자음자와 모음자를 음절 단위로 모아 쓰는 방식이다.
- 23** 풀어쓰거나 모아쓰기는 단어의 생성 여부나 단어를 생성하는 개수와는 관련이 없다. 자음자와 모음자를 풀어서 쓰느냐 음절 단위로 모아서 쓰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 24** 일본 가나도 중국의 한자와 마찬가지로 입력하려는 글자의 발음을 로마자 알파벳으로 먼저 입력하고 나서 해당 문자를 찾아 변환해야 한다.
- 25** 입력하려는 글자의 발음을 알파벳으로 입력하고 해당 문자를 찾아서 선택해야 하는 다른 나라의 문자와 달리 한글은 입력하려는 글자를 컴퓨터 자판을 누르면 바로 입력할 수 있어서 쉽고 빠르다.
- 26** 휴대 전화 자판에 모음 기본자인 ‘ㄱ, ㅡ, ㅣ’를 합하여 다른 모음자를 만드는 합성의 원리를 적용한 것이다.
- 27** ‘획 추가’ 자판을 이용해 자음 기본자에서 획을 추가하여 다른 자음자를 만드는 가획의 원리를 적용한 것이다.

이해와 탐구

114~118쪽

① 한글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자음자를 만든 원리]

1 (1) 자음 기본자, 발음 기관 (2) 혀끝, 입술(입), 목구멍 (3) 발음 기관, 상형 **2** (1) ㄴ, ㄷ, ㄹ (2) ㄱ, ㅋ, ㆁ, ㄷ, ㅌ, ㄴ

[모음자를 만든 원리]

1 (1) 하늘, 땅, 사람 (2) 자연, 상형 **2** (1)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ㅖ, ㅘ, ㅙ, ㅚ, ㅜ, ㅠ, ㅡ, ㅣ, ㅖ

② 한글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

1 (1) 모양이 비슷함. / 모양이 각기 다름. / 가획, 발음 (2) 영어 알파벳, 한글 **2** (1) 음절, 모아쓰기, 풀어쓰기 (2) 모음자, 음절, 의미

문제 해결과 적용

119쪽

- 1** (1) ㄱ 자음자, 모음자 ㄴ 알파벳, 한자 (2) 입력, 빠르다
2 ㄱ, ㅡ, ㅣ, 합성 ㄴ 가획



소단원 마무리

120쪽

한글을 창제한 배경과 목적 한자, 백성, 글자

자음자를 만든 원리 상형, 가획, 병서, ㅋ, ㆁ, ㅛ, ㅕ, ㅜ, ㅠ, ㅡ, ㅣ

모음자를 만든 원리 상형, 합성,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한글의 특성 ① 가획, 발음 ② 하나 ③ 음절



교과서 속 예시

121쪽

- 01** 상형, 가획, 병서 **02** 하늘, 땅, 사람 **03** ㅏ, ㅑ, ㅓ, ㅕ / ㅗ, ㅛ, ㅜ, ㅠ, ㅡ, ㅣ **04** 가획, 발음 **05** 다양한, 하나 **06** 모아쓰기, 풀어쓰기 **07** 입력 / 알파벳, 한자 **08** ㅏ, ㅑ, ㅓ, 합성 / 획 추가, 가획

기초가 튼튼해지는 소단원 다잡기

122~125쪽

- 01** ① **02** ⑤ **03** ③ **04** 한글의 자음 기본자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뜬 상형의 원리에 의해 만들었다. **05** ④ **06** ③ **07** ⑤ **08** ① **09** ② **10** 이미 만들어진 자음자를 가로로 나란히 쓴 것이다. **11** ④ **12** 한글 자음자를 만든 원리에 따라 나누었다. **13** ㄱ, ㆁ, ㅛ, ㅕ, ㅜ, ㅠ, ㅡ, ㅣ **14** ② **15** ㄱ, ㆁ, ㅛ, ㅕ, ㅜ, ㅠ, ㅡ, ㅣ **16** ② **17** ③ **18** ⑤ **19** (나)의 ‘모아쓰기’ 방식이 더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가)는 풀어쓴 자음자와 모음자를 다시 음절로 조합하여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데, (나)는 자음자와 모음자가 음절 단위로 모여져 있어서 읽는 즉시 의미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0** ③

- 01** 글자를 모른다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나)와 같이 농사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지식들이 담겨 있는 책이 있음에도 글자를 몰라서 책을 읽지 못하여 그 안에 담긴 지식을 알기 어려웠던 것이다.
- 02** 우리 문자가 없어서 빌려 썼던 중국의 한자는 배우기가 어렵고 우리말과 달라서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게 된 세종 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익혀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만의 글자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 03** 한자는 중국의 글자이고 그들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자신들의 글자를 써 왔으므로 굳이 다른 나라의 글자인 한글을 한자 대신 쓸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 04** 한글의 자음 기본자는 발음할 때의 발음 기관의 모양을 관찰하여 그 모양을 본뜨는 상형의 원리에 의해 만든 것이다.
- 05** ‘ㅏ’는 발음 기관인 이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자음자이다.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ㄴ’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ㄷ’은 입술(입) 모양을, ‘ㅇ’은 목구멍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오답 풀이 ①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자음자는 ‘ㅇ’이다.

② 입술 모양을 본떠서 만든 자음자는 ‘ㅁ’이다.

③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떠서 만든 자음자는 ‘ㄴ’이다.

⑤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떠서 만든 자음자는 ‘ㄱ’이다.

06 ‘ㅂ’와 ‘ㅍ’은 기본자 ‘ㅁ’에 소리의 세기에 따라 획을 더하여 만든 글자이다. ‘ㅂ’은 ‘ㅁ’보다 소리가 세게 나고, ‘ㅍ’은 ‘ㅁ, ㅂ’보다 소리가 세게 난다.

07 ‘ㅅ, ㅆ, ㅈ, ㅊ’은 모두 발음할 때 혀가 이에 닿아 나는 잇소리이지만, ‘ㅍ’은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입술소리이다.

08 자음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만드는 가획의 원리에 따라 ‘ㄴ’에 획을 한 번 더하여 ‘ㄷ’을 만들고, ‘ㄷ’에 획을 한 번 더하여 ‘ㅌ’을 만들었다.

09 ‘ㅅ’은 상형의 원리에 의해 발음 기관인 이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자음 기본자이다. 나머지는 모두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가획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자음자이다.

10 <보기>에 제시된 ㅁ, ㅂ, ㅅ, ㅆ, ㅈ, ㅊ, ㅎ은 이미 만든 글자인 ‘ㄱ, ㄷ, ㅂ, ㅅ, ㅆ, ㅈ’을 가로로 나란히 쓰는 병서(竝書)의 원리에 따른 것이다.

11 ‘ㅈ’은 가획의 원리에 의해 기본자 ‘ㅅ’에 획을 추가하여 만든 글자이지만, ‘ㅆ’은 병서의 원리에 의해 이미 만든 글자인 ‘ㅆ’을 가로로 나란히 쓴 글자이므로 만들어진 원리가 다르다.

12 (가)는 상형의 원리에 따라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고, (나)는 가획의 원리에 따라 자음 기본자에 획을 더해서 만들었으며, (다)는 병서의 원리에 따라 이미 만든 글자를 가로로 나란히 써서 만들었다.

13 한글의 모음 기본자는 자연, 즉 ‘하늘(ㅇ)’, ‘땅(ㅡ)’, ‘사람(ㅣ)’의 모양을 본뜬 상형의 원리로 만들었다.

14 모음 기본자 ‘ㅡ, ㅣ’에 ‘ㅇ’을 합하여 만든 모음자는 ‘ㅏ, ㅑ, ㅓ, ㅕ’이고, ‘ㅏ, ㅑ, ㅓ, ㅕ’에 ‘ㅇ’을 한 번 더 합하여 만든 모음자는 ‘ㅛ, ㅜ, ㅝ, ㅠ’이다. <보기>의 (3)에서 ㉠에서 ㉣이 만들어진다고 하였으므로,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이다.

15 모음 기본자 ‘ㅇ’에 모음 기본자 ‘ㅣ’를 한 번 합하여 만들어진 모음자는 ‘ㅓ’이고, 모음 기본자 ‘ㅡ’에 기본자 ‘ㅇ’을 한 번 합하여 만들어진 모음자는 ‘ㅗ’이다.

16 ‘ㅓ’는 모음 기본자 ‘ㅇ’에 모음 기본자 ‘ㅣ’를 한 번 합한 모음자로, 이렇게 만든 ‘ㅓ’에 모음 기본자 ‘ㅇ’을 한 번 더 합하면 ‘ㅕ’가 된다.

오답 풀이 ① ㅏ + ㅇ → ‘ㅑ’

③ ㅓ + ㅇ → ‘ㅕ’

④ ㅏ + ㅇ → ‘ㅑ’

⑤ ㅏ + ㅇ → ‘ㅑ’

17 ‘ㅓ’는 ㉠의 원리에 따라 모음 기본자 ‘ㅡ’에 모음 기본자 ‘ㅇ’을 한 번 합하여 만든 글자이지만, ‘ㅡ’는 <보기>에 제시된 원리가 아닌 상형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예이다.

18 한글의 자음 기본자와 모음 기본자가 상형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것은 맞지만, 자음 기본자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모음 기본자는 자연(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19 자음자와 모음자를 가로로 풀어쓴 (가)의 ‘풀어쓰기’ 방식보다 자음자와 모음자를 음절 단위로 모아쓴 (나)의 ‘모아쓰기’ 방식이 독자가 의미를 빨리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다.

20 <보기>의 휴대 전화 자판으로 모음자 ‘ㅓ’를 입력하려면 ‘ㅣ’와 ‘ㅇ’을 순서대로 누르면 된다. 이는 모음 기본자를 서로 결합하여 만든 합성의 원리를 활용한 것이다.

내용이 탄탄해지는 **2024년 1학기**

126~129쪽

01 ㉠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관리 방법, ㉡ 청소년 스트레스의 원인, ㉢ 청소년 스트레스의 관리 방법 **02** ㉢ **03** B의 청소년 비만 문제는 발표 주제와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04** ㉤ **05** ㉢ **06** ㉤ **07** ㉢ **08** 자음 기본자와 모음 기본자를 만들 때 공통적으로 활용된 글자를 만든 원리는 ‘상형의 원리’이다. 다만, 자음자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고, 모음자는 자연, 즉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09** ㉠ ㉡, ㉢ ㅂ, ㉣ ㅅ, ㉤ ㅎ **10** ㉣ **11** ㉠은 자음 기본자에 획을 더해서 만든 것이고, ㉡은 이미 만든 글자를 가로로 나란히 써서 만든 것이다. **12** ㉤ **13** ㉠: ㅏ, ㅑ, ㅓ, ㅕ, ㉡: ㅛ, ㅜ, ㅝ, ㅠ, ㅗ, ㅛ, ㅜ, ㅝ, ㅠ, ㅗ **14** (1) 발음을 할 때 나는 소리가 비슷하다. (2) 한글은 소리가 비슷하면 글자의 모양도 비슷한데, 영어는 소리가 비슷해도 글자의 모양은 완전히 다르다. **15** 알파벳은 하나의 글자가 다양한 소리를 내는 데 반해 한글은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리만 내기 때문에 배우기 쉽다. **16** ㉢ **17** ㉣

01 발표 개요를 작성할 때, 도입 단계에는 발표 배경 및 주제 소개, 발표 순서 등을 안내하고, 전개 단계에서는 발표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리 단계에는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당부의 말을 하며 마무리한다. 이를 (가)~(다)의 내용으로 정리하면, 도입 단계에는 스트레스와 관련 있는 경험 소개, 발표 주제 및 순서 안내가 나타나야 하고, 전개 단계에는 청소년 스트레스의 실태와 원인, 스트레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청소년 스트레스 관리 방법이 나와야 하며, 정리 단계에는 스트레스의 적절한 관리를 당부하며 마무리해야 한다.

02 (다)에서 조사한 내용을 모두 말하는 것보다는 발표 단계에 맞게 내용을 간추려 핵심 정보만 전달하기로 하였고, 발표



의 핵심 정보를 잘 보여 줄 수 있도록 조사한 내용의 순서를 조정한다고 하였다.

- 03** 발표 내용을 선정할 때는 발표 주제와 발표 목적에 알맞은 정보인지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보기>의 B는 식습관과 운동 부족을 원인으로 청소년 비만이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 내용으로,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관리 방법'이라는 발표 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 04** (다)에서 우리 학교 학생 약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절반 이상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한 것인지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답한 청소년이 100명인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38명이 최근 한 달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답했고,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았다고 답한 학생들도 15명이나 되었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현대인들의 질병 원인 1위가 스트레스라고 하였다.

② (라)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는 신체적·심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지만 적절하게 관리하면 우리 삶에 활력을 줄 수도 있다고 하였다.

③ (가)에서 친구들 대부분이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걱정만 할 뿐, 이를 해소하지는 못했다고 하였다.

④ (마)에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운동으로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스트레칭' 등을 소개하였다.

- 05** (나)에서 사진을 가리키는 것과 같은 손짓은 비언어적 표현에 해당한다. 준언어적 표현은 말의 빠르기, 목소리의 크기, 억양, 어조와 같이 언어적 표현과 함께 이루어지는 음성적 효과를 말한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발표자는 발표 시작 전에 자신을 소개하고 존댓말을 쓰는 등 청중에 대한 예의를 지키며 발표하고 있다.

② (가)에서 '분명한 발음과 큰 목소리'로 발표하고 있다. 목소리 크기와 발음은 준언어적 표현에 해당한다.

④ (나)에서 발표자는 '사진 속 사람들을 봐 주세요. 모두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모습일까요?'라고 질문하고, 청중의 대답을 들은 뒤에 발표를 이어 가는데, 이는 청중과 소통하는 모습이다.

⑤ (가)에서 발표자는 '바른 자세로 서서 청중과 골고루 눈을 마주 치며' 발표하고 있다. 자세와 시선 처리는 비언어적 표현이다.

- 06** 매체 자료는 정보를 많이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여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것이므로 ⑤와 같은 기준은 발표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다. 또한 매체 자료는 발표 내용과 상황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지 꼭 다섯 종류 이상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07**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에 사용된 한자는 일반 백성들이 익히기에는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대다수의 백성들은 한자를 쓰거나 읽을 줄 몰라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백성들이 한자를 쓰지 말자고 요구했다는 내용은 그림에 제시되지

않았다.

- 08** 한글의 자음 기본자(ㄱ, ㄴ, ㄷ, ㄱ, ㅇ)와 모음 기본자(ㅏ, ㅑ, ㅣ)는 공통적으로 어떤 모양을 본떠 만드는 상형의 원리에 따라 만들었다. 그러나 자음 기본자는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든 반면, 모음 기본자는 하늘(ㅏ), 땅(ㅑ), 사람(ㅣ)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 09** 'ㅋ, ㆁ, ㅌ, ㅍ, ㅊ, ㅍ, ㅊ, ㅎ'은 자음 기본자에 소리의 세기에 따라 획을 더하는 가획의 원리에 따라 만들었다.

- 10** 'ㄴ, ㄷ, ㅌ, ㅍ'는 혀끝이 윗잇몸에 닿아서 나는 '혓소리'인 반면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아서 나는 '어금닛소리'이다.

- 11** ㉠은 자음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만드는 가획의 원리에 따라 만든 것이고, ㉡은 이미 만들어진 자음자(ㄱ, ㄷ, ㅌ, ㅍ)를 가로로 나란히 쓰는 병서의 원리에 따라 만든 것이다.

- 12** 한글의 모음자를 만드는 원리인 '합성의 원리'는 모음 기본자(ㅏ, ㅑ, ㅣ)끼리 서로 결합하여 만드는 방식으로, 모음 기본자 이외의 모음자끼리 결합하는 방식이 아니다.

- 13** <보기>의 모음자는 모음 기본자를 서로 결합하여 만든 것이다. 모음 기본자인 'ㅏ, ㅣ'에 'ㅑ'를 한 번 합하면 'ㅓ, ㅕ, ㅗ, ㅛ(㉠)'의 모음자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ㅓ, ㅕ, ㅗ, ㅛ'에 'ㅑ'를 한 번 더 합하면 'ㅖ, ㅜ, ㅛ, ㅠ(㉡)'가 만들어진다.

- 14** 한글의 자음자는 가획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져서 글자 모양이 비슷하면 발음이 비슷한 반면, 영어 알파벳은 발음이 비슷해도 글자 모양이 각각 다르다.

- 15** 한글 'ㅏ'는 어떤 단어에 쓰이더라도 [아]로 발음되지만, 영어 알파벳 'a'는 각각의 단어에서 [어], [에이], [어]와 같이 다양한 소리를 낸다. 따라서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릿값을 갖는 한글이 배우기 쉽다.

- 16** [자료 2]의 '먹다'와 같이 자음자와 모음자를 음절 단위로 모아쓰면 문장이 짧아져 풀어쓰기에 비해 읽는 속도가 훨씬 빠르고, 의미를 빨리 이해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자료 2]에 제시된 한글 '먹다'의 경우 자음자와 모음자를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한 것이다.

② [자료 1]에 제시된 영어 알파벳 'eat'을 보면 자음자와 모음자를 가로로 '풀어쓰기'한 것이다.

④ 모아쓰기를 하면 무슨 말인지 빨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독자가 의미를 파악하기 용이하다.

⑤ 어간은 '먹다, 먹고, 먹으니'에서 '먹'과 같이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으로, 모아쓰기를 하면 단어의 활용이 많은 우리 글에서 어간을 찾아내기 쉽다.

- 17** 한자에 비해 한글은 입력하려는 글자를 자판에서 찾아 누르면 바로 입력되기 때문에 훨씬 간단하고 쉽다.

4 세상을 보는 눈

01. 귀뚜라미

단원 맛보기

132쪽

1 (1) ○ (2) × 2 '나' 3 ① 4 어조

- 2 <보기>의 시에서는 화자인 '나'가 직접 등장하여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 3 시의 화자는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으로, 음악적 효과는 시의 운율에 의해 드러난다.
- 4 <보기>는 시 속에서 화자가 사용하는 목소리의 특성인 어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내용 분석

133쪽

1 '나' 2 여름, 울음 3 감동, 노래

표현 분석

133쪽

귀뚜라미, 가을, 의인법, 여름, 가을, 대조법, 귀뚜라미 뚜르르, 의성어

! 학습 활동 응용

134~136쪽

- 01 ⑤ 02 ⑤ 03 자신의 울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삶)가 되기를 바란다.
- 04 ① 05 ③ 06 ① 07 알맹이 08 ⑤
- 09 전학, 슬픔 10 ⑤

- 01 이 시의 '나'는 매미 소리가 크게 들리는 여름철에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힘겹게 울음소리를 토해 내고 있는 '귀뚜라미'로, 가을이 되어 자신의 울음이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 가는 노래가 되길 소망하고 있다. 따라서 '나'가 지금은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 가는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02 이 시에서 '울음'은 '차가운 바닥 위'에서 '발길에 눌러' 내는 소리이지만 고통 속에서도 '나 여기 살아 있다'고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소리이기도 하다.
- 03 이 시에서 '나'는 지금은 자신의 울음이 '노래'가 아니지만 가을이 되면 '누군가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는,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 가는 노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 04 귀뚜라미는 지금 '여름'을 겪고 있지만, '가을'이 되면 자신의 '울음'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인내 끝에 기회를 맞은 사람은 귀뚜라미의 처지와 어울리지 않는다.

- 05 사람이 아닌 귀뚜라미를 화자로 내세운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해 화자의 의도가 왜곡되지 않았다. 이 시를 읽을 때 귀뚜라미의 습성을 토대로 하면 자세한 설명이 없어도 화자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어려운 처지에 놓인 화자가 절실하게 가을을 기다리는 심정이 더욱 생동감 있게 느껴지며 시적 상황 전체에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뜻이 생겨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귀뚜라미와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 06 '나'는 장에 가신 어머니를 찾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어머니와 다시 만나 행복함을 느꼈던 경험을 능청스러운 말투로 표현하고 있다. 이 상황과 태도를 통해 화자가 능청스러운 성격의 어린아이임을 추측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나'는 '어머니가 참 좋다'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어머니에 대한 반감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나'는 어머니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만난 아이이다.

④, ⑤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만난 상황을 아이의 입장에서 전달하고 있다.

- 07 '껍데기'는 중요한 핵심이 빠진 존재라는 의미로, '알맹이'는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의미로 쓰였다.

- 08 화자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만난 어머니를 보며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어머니가 너무나 좋다'라고 반복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잃어버린 아이로 인해 애태웠던 어머니의 모습은 있지만 아이를 위한 희생과 헌신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② 어머니를 잃어버린 것은 아이가 길을 잃었기 때문이므로 가족 간의 갈등이 원인이 아니다.

③ 화자는 어머니에 대한 애뜻한 사랑을 느끼고 있으므로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 이를 염원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어린 아이가 어머니에게 질문하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능청스러운 말투로 보아 순수한 호기심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아이의 호기심이 이 시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라고 볼 수는 없다.

- 09 진이와 헤어지는 것을 슬퍼하는 친구를 화자로 설정하면, 전학 가는 상황의 슬픔을 잘 표현할 수 있다.

- 10 화자를 '진이를 바라보는 친구'에서 '진이'로 바꾸면 전학을 가야 하는 상황에 처한 진이가 느끼는 서운하고 아쉬운 감정이 직접 드러난다.

이해와 탐구

134~135쪽

- 1 (1) 귀뚜라미 / 여름 / 지하도 콘크리트 (2) 매미, 바닥, 발길 / 마음, 가슴 (3) 매미, 노래 (4) 가을, 감동, 노래 2 귀뚜라미, 비유적, 감동적, 공감



문제 해결과 적용

135~136쪽

- 1 (1) 파출소, 어머니 (2) 어린이, 철, 남학생 (3) 어머니, 사랑, 꾸지람
2 (1) 전학 (2) 친구, 헤어지는



소단원 마무리

137쪽

작품 개관 귀뚜라미, 의인화, 귀뚜라미, 대조, 의문형, 운율
시의 짜임 매미, 귀뚜라미, 노래
시의 화자 존재감, 귀뚜라미
대조적인 소재 매미, 높은 / 가을
시어의 의미 울음, 존재 / 마음, 감동

기초가 튼튼해지는 소단원 다잡기

138쪽

- 01 ② 02 ⑤ 03 '울음'은 힘겹게 살아가는 존재가 내는 생존의 소리이며, '노래'는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위안의 소리이다.
04 ① 05 시의 화자를 어린아이로 설정하여 시적 상황을 순수한 아이의 시각으로 마음에 와닿게 전달할 수 있다.

- 01 이 시의 2연과 3연의 마지막 행에서는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의문형 어미로 표현하여 귀뚜라미의 소망을 간절하게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시는 여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화자는 가을이 오기를 꿈꾸고 있으나 아직 가을이 된 것은 아니다.

③ 이 시는 화자가 있는 배경인 '지하도 콘크리트 벽'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현대 문명을 예찬하는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④ 이 시의 화자는 의인화된 '귀뚜라미'이다.

⑤ 이 시의 화자는 애상적인 어조를 통해 시의 내용을 차분하게 전달하고 있다.

- 02 이 시의 화자는 현재 고통스럽고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가을이 되면 자신의 울음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품으며 현재를 견디고 있다.

- 03 '울음(㉠)'과 '노래(㉡)'는 이 시의 핵심 시어이다. '울음'은 화자가 괴로운 상태에서도 자신이 살아 있음을 알리는 소리이고, '노래'는 누군가의 가슴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소리이다. 화자는 지금 당장은 힘든 처지에 있지만, 언젠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를 부르고 싶다는 소망을 갖고 있다.

- 04 ㉠은 '가을'을 사람에 빗대어 '어린 풀쭉 위에 내려와 뒤척이기도 하고 계단을 타고 이 땅 밑까지 내려오는'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는 대유법, ③은 영탄법, ④는 반어법, ⑤는 역설법을 설명한 것이다.

- 05 이 노랫말은 화자를 어린아이로 설정하여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장으로 찾으러 가거나, 길을 잃고 파출소에 앉아 있고 있는 등의 상황을 마음에 와닿게 전달하였다. 또한, 어머니에 대한 순수한 애정을 가지고 있어서 꾸지람을 듣는 상황도 밝고 경쾌하게 표현하였다.

02. 동백꽃

단원 맛보기

139쪽

- 1 (1) × (2) ○ 2 시점 3 ② 4 간접적 제시

- 2 소설에서 인물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시각, 태도, 관점을 시점이라고 하며, 시점은 서술자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 3 작품 내부의 주변 등장인물인 '나'가 주인공을 관찰하여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은 '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 4 <보기>에서는 대화나 행동을 통하여 어수룩하고 눈치 없는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하였다.

핵심 속삭

P. 140 닭싸움, 이유

P. 143 감자, 자존심

P. 145 고추장, 순진한

P. 147 닭, 화해 / 동백꽃, 갈등, 애정, 순수, 사랑

제대로 독해 & 문제로 확인

140~147쪽

- 1 ① 2 적극적, 통명스럽게 3 감자, 갈등 4 ②, ④
5 ① 6 ② 7 ⑤ 8 소작농, 마름 9 ⑤ 10 수탉
에게 고추장을 먹여 닭싸움에 대비하는 것 11 ② 12 관심
13 갈등의 심화 14 역순행적 15 ④ 16 ④ 17 호
의, 무시 18 ① 19 동백꽃 20 ③

- 1 이 글의 서술자는 작품 속의 '나'이며 주인공 '나'가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

- 2 점순이는 '나'에게 먼저 말을 걸며 자신의 관심을 표현하는 적극적인 성격이지만, '나'는 그런 점순이의 마음을 모르고 통명스럽게 대하는 어수룩하고 무뚝뚝한 성격이다.

- 3 점순이는 '나'에 대한 애정 표시로 감자를 몰래 주었는데, '나'가 그 감자를 거절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 4 ㉠에서 점순이는 '나'가 자신의 호의를 거절하자 불안하기도 하고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나'가 야속하여 달아났을 것이다.

- 5 평소 마을 어른의 농담을 천연덕스럽게 받아넘기고 부끄럼을 타거나 분하다고 울지 않는 점순이의 모습으로 볼 때, 활달하고 야무진 성격임을 알 수 있다.
- 6 ㉠을 통해 '나'는 마름집 딸인 점순이에게 적극적으로 맞서지 못하는 소작농의 아들임을 알 수 있다.
- 7 점순이는 '나'의 감정을 자극하여 자신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나'의 답을 괴롭힌 것이다.
- 8 점순이가 '나'의 집 닭을 괴롭히고 있지만, 소작농의 아들인 '나'는 마름인 점순이의 집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을 것이다.
- 9 이 소설은 점잖은 말투를 사용하지 않았고 소년과 소녀가 말하는 듯한 말투를 통해 두 사람이 갈등하는 장면조차 익살스럽게 표현하였다.
- 10 '나'는 닭싸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각오로 수탉에게 고추장을 먹인다.
- 11 ㉡에서 '나'는 자신의 수탉이 기대와 달리 당하는 모습에 몹시 실망하고 있다.
- 12 ㉢에서 점순이는 일부러 '나'에게 들리도록 큰 소리로 웃고 있다. 이는 '나'를 약 올리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임을 알 수 있다.
- 13 점순이가 계속 닭싸움을 시키자 '나'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닭싸움을 붙이게 되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의 갈등이 더 깊어진다.
- 14 이 글은 시간의 흐름대로 글을 전개하지 않고,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 15 ㉣에서 '나'가 눈물이 난 까닭은 거의 죽다 살아난 '나'의 닭을 또 꺼내서 닭싸움을 시켜 놓고는 천연덕스럽게 호드기를 붙고 있는 점순이를 보니, 너무 화가 나고 억울했기 때문이다.
- 16 '나'가 점순이네 수탉을 때려죽이고 점순이가 이를 비밀로 해 주기로 하면서 점순이와 '나'는 화해하게 된다.
- 17 점순이는 '나'에게 앞으로 자신의 호의를 무시하지 않을 것인지 물었으나 '나'는 이런 의도를 알아듣지 못하고 '그래'라고 대답하였다.
- 18 독자들은 알고 있는 점순이의 마음을 서술자인 '나'만 모르는 상황을 설정하여 웃음을 유발하고 해학성을 높였다.
- 오답 풀이** ② 독자들에게 '나'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였으며, 대상에 대한 비판 또한 하지 않았다.
- ③ '나'의 입장에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였으므로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다.

- ④ '나'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독자가 추측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 ⑤ 독자들만 알고 '나'는 모르는 상황을 설정하였다.

- 19 '노란 동백꽃'이 피어 있는 장면을 통해 소설의 계절적 배경이 '봄'임을 알 수 있다.
- 20 '나'와 점순이가 동백꽃에 파묻히는 장면을 통해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되는 것을 순수하고 서정적인 분위기로 형상화하였다.

이해와 탐구

148~151쪽

- 1 닭싸움, 수탉, 나흘 전, 거절, 씨앗닭, 고추장, 오늘, 수탉, 동백꽃
- 2 (1) 남자, 17, 열일곱, 마름, 소작농 (2) 계층, 소작농, 무뚝뚝, 순진, 다혈질 / 공격적, 적극적, 활달 3 (1) 나 (2) 자존심, 제정신, 약 / 마음, 복수 (3) 해학적, 순수한 4 (1) ㉠ '나'의 행동, '나'의 속마음, 점순이의 행동, ㉡ 만식이의 행동, 만식이의 속마음, 점순이의 행동, 점순이의 속마음 (2) 속마음, 균형, 심리, 전개, 의도, 마음

! 학습 활동 응용

148~156쪽

- | | | | | | |
|---------------------------|---------------|------|---------|------|------|
| 01 ③ | 02 ⑤ | 03 ① | 04 동백꽃 | 05 ④ | 06 ⑤ |
| 07 ② | 08 마름, 소작농 | 09 ② | 10 ② | 11 ③ | 12 닭 |
| 싸움 | 13 ② | 14 ③ | 15 ①, ⑤ | 16 ④ | 17 ① |
| 18 ⑤ | 19 ⑤ | 20 ③ | 21 ① | 22 ④ | 23 ② |
| 24 내면 심리 | 25 ④ | 26 ① | 27 ③ | 28 ② | 29 ③ |
| 30 자신의 재능을 의심하며 끊임없이 노력함. | 31 ① | 32 ⑤ | | | |
| 33 ② | 34 3인칭 관찰자 시점 | | | | |

- 01 이 소설에서 벌어진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배열하면 ③-①-②-⑤-④의 순서이다.
- 02 이 소설은 현재에서 과거를 회상하였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 03 점순이가 '나'에 대한 호감의 표시로 '감자'를 내밀었으나 '나'가 그것을 거절하면서 점순과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 오답 풀이** ② '닭싸움'은 인물들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소재이다.
- ③ '고추장'은 '나'가 닭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찾은 방법이다.
- ④ '동백꽃'은 두 인물의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보여 주는 소재이다.
- ⑤ '지계막대기'는 '나'의 분노를 표출하는 소재이다.
- 04 이 글에서 '동백꽃'은 두 사람의 갈등이 사라졌음을 보여 주는 소재로 소년과 소녀의 사랑을 순수하게 그려 내는 역할을 한다.
- 05 '나'는 소작농의 아들로, 마름집 딸인 점순이에게 위화감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나'가 이러한 자신의 출생 신분을 뛰어넘으려고 노력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
- 06 이 글에서 점순이는 평소 활달하고 씩씩하며 야무진 아이이지만, '나'를 좋아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는 순박한 면도 보이고 있다. 또한 무척 적극적인 인물로 소심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 07** ‘나’는 점순이의 관심과 애정에 대해 알아채지 못하고 무관심하게 대한다. 이러한 ‘나’의 태도를 표현하기에는 ‘서로 무심하게 보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②의 ‘소 닭 보듯’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뽕 대신 닭’: ‘꼭 적당한 것이 없을 때 그와 비슷한 것으로 대신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③ ‘가재는 게 편’: ‘모양이나 형편이 서로 비슷하고 인연이 있는 것끼리 서로 잘 어울리고, 사정을 보아주며 감싸 주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④ ‘누워서 떡 먹기’: ‘하기가 매우 쉬운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⑤ ‘울며 겨자 먹기’: ‘싫은 일을 억지로 마지못하여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08** 점순이는 마름의 딸이고, ‘나’는 소작농의 아들이다. ‘마름’은 토지 소유주인 지주의 대리인이고, ‘소작농’은 지주의 대리인인 마름에게서 땅을 빌려 소작료를 지급하고 경작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 09** 점순이는 ‘나’에게 감자를 주어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오답 풀이 ① 점순이는 ‘나’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을 뿐, ‘나’가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③ 점순이가 감자를 준 이유는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기보다는 ‘나’와 친해지고 싶어서이다.

④ 점순이는 ‘나’를 기쁘게 하고 싶었던 것이지, ‘나’가 일하는 것을 약 올리기 위해 감자를 내민 것은 아니다.

⑤ 점순이는 ‘나’에게 호감을 표시하고 싶었을 뿐이며, ‘나’에게 고마워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 10** 점순이가 ‘나’에게 감자를 건네며 ‘나’의 형편을 드러내는 말을 하자 이에 자존심이 상한 ‘나’는 점순이가 주는 감자를 거절한다.

- 11** 서술자 ‘나’의 어수룩하고 순박한 모습은 독자로 하여금 웃음을 띠게 만든다.

오답 풀이 ①은 현실에서 있을 수 없거나 헛된 것을 표현할 때, ②는 자신의 언행에 잘못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깊이 생각해 볼 때, ④는 매우 슬프고 참담하거나 불행하게 엮힌 것을 표현할 때, ⑤는 교훈이 되거나 교훈으로 삼을 만한 내용을 드러낼 때에 해당한다.

- 12** 점순이는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나’에게 원망과 반감을 드러내기 위해 닭싸움을 시작한다. 여기서 닭싸움은 ‘나’에 대한 점순이의 분노의 표현이자 ‘나’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한 행동이다.

- 13** (가)에서는 작품 안에 있는 주인공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으며, (나)에서는 작품 밖의 서술자가 등장인물들의 마음과 행동을 모두 전하고 있다.

- 14** (가)에서는 서술자인 ‘나’가 자신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전달하기 때문에 다른 인물의 내면은 드러나지 않는다.

- 15** (나)의 서술자는 등장인물이 아닌 제삼자로 모든 인물의 내면 심리까지도 전달한다.

오답 풀이 ②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의 주인공 ‘나’를 3인칭 전지적 시점에서는 ‘만식이’로 지칭할 뿐 주인공은 똑같은 행동과 말을 하므로 주인공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③ 3인칭 전지적 시점의 서술자는 작품 밖에 위치한다.

④ 1인칭 주인공이 서술자일 때 주관적인 입장에서 서술한다.

- 16** (가)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나’의 입장에서 서술되어 ‘나’의 어수룩한 모습이 재미를 주는데, 이를 (나)와 같이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바꾸면 그 효과가 사라지게 된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⑤는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바꾸었을 때의 효과이다.

- 17** 이 글의 서술자는 소설 속에 등장하는 ‘나’이다. ‘0’과 ‘1’ 두 명의 인물이 서술자로 등장하여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이 글의 중심 소재는 ‘어린 시절의 사생 대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③ 이 글에서는 장원이 뒤바뀐 한 가지 사건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사건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다.

④ 인물 간의 갈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한편 0의 ‘나’는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

⑤ 현재는 어른이 된 서술자들의 입장에서 과거를 회상하며 이야기하고 있다.

- 18** 0의 ‘나’는 다른 학생 대신 나가 성의 없이 그린 그림으로 장원이 된 뒤로 자신에게 뛰어난 재능이 있다고 확신하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0의 ‘나’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라고 하였다.

② 1의 ‘나’는 부유한 가정에서 피아노와 그림 과외를 받으며 성장했다고 하였다.

③ 0의 ‘나’는 아버지가 학창 시절 그림에 재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재능을 물려받았다고 믿는다.

④ 0의 ‘나’와 1의 ‘나’는 4학년이 되어 학교 대표로 군 단위의 사생 대회에 나갔다고 하였다.

- 19** 1의 ‘나’는 부유한 집안의 외동딸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났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나’의 성장 환경을 표현하는 말로는 ‘살림이 넉넉하다.’는 뜻의 ⑤의 ‘유복했다’가 적절하다.

- 20** ㉠에서 1의 ‘나’는 상을 받지 않아도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욕심이 없는 성격임을 알 수 있다.

- 21** 이 글은 ‘0’과 ‘1’의 두 인물이 ‘나’로 등장해 번갈아 가며 각 각 자신의 입장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③ 두 명의 작품 속 인물이 등장하여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해석한 바를 서술하고 있다.

④ 두 명의 서술자가 모두 어른이 된 이후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고 있다.

⑤ 두 명의 인물이 서술자로 등장하여 한 가지 사건에 대해 각각 자신의 입장을 서술할 뿐, 한 명의 인물이 서로 반대되는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22 '나'는 누군가 자신의 출품 번호인 124번으로 작품을 냈고 그것이 장원 작품으로 선정된 것을 알게 된 것이지 그림을 바꿔치기 한 것은 아니다.

23 '나'는 자신의 그림이 장원이라는 사실에 뿌듯해하지만 곧 그림이 자신이 그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몹시 놀라고 있다.

24 (라)에서는 주인공인 0의 '나'가 자신에게 닥친 상황 때문에 놀라면서 고민하는 내용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25 (마)에서 0의 '나'는 다른 누군가가 그린 장원작이 자신이 그린 그림보다 더 뛰어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6 ㉠에서 0의 '나'는 당연히 자신의 그림이라고 생각했던 장원작이 자신이 그린 그림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신의 재능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되면서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27 ㉡에서 0의 '나'는 장원을 받은 그림의 주인인 여자아이가 지나가자 상을 대신 받았다는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여자가 이를 볼 면목이 없어 눈을 감은 것이다.

28 ㉢은 0의 '나'가 작품을 그릴 때 자신이 가진 능력 그 이상을 쏟아부으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태도를 갖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29 1의 '나'는 미술에 재능이 있지만 그것으로 상을 받기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행복한 삶을 만족하며 사는 것을 원한다.

오답 풀이 ①, ④ 1의 '나'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거나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에 대해 무관심한 인물이다.

② '1'은 유복하게 성장한 자신의 삶에 만족해하는 인물로, 자신의 처지에 어울리게 살아야 한다는 점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⑤ 1의 '나'는 장원에 뽑힐 정도로 예술적으로 뛰어난 재능이 있음에도 상을 받고자 하는 욕심이 없는 인물로, 노력을 통해 예술적 재능을 얻으려고 하는 인물이 아니다.

30 0의 '나'는 어린 시절의 장원 수상자가 바뀐 사건으로 인하여 자신의 재능을 믿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던 이전의 태도를 반성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태도를 보인다.

31 1의 '나'는 0의 '나'의 너절한 인상을 보고 이 일을 바로잡는 것이 귀찮은 일이라고 느꼈다. 이는 0의 '나'가 느낄 좌절감에 대한 압박감이 싫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②는 상에 대한 욕심이 없는, 1의 '나'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

③은 귀찮은 것을 싫어하는 1의 '나'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

④는 경쟁을 싫어하는 1의 '나'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

⑤는 0의 '나'에 대해 잘 모르는 1의 '나'가 한 말이라고 볼 수 없다.

32 이 글에서는 작품 속 등장인물인 '0'과 '1' 두 명을 각각 서술자로 설정하여 자신의 입장에서 사건을 설명하고 내면을 서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자는 두 인물의 내면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두 명의 서술자가 같은 사건에 대해 전달하고 있다.

② 이야기 속 배경과 서술자의 수는 관련이 없다.

③ 서술자의 수는 현재와 과거의 시간 교차와 관련이 없다.

④ 서술자 두 명이 각각 자신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어서 독자의 상상력을 제한하고 있다.

33 (가)는 사건의 주인공이 작품 속에서 이야기를 서술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며, (나)는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인물의 내면을 분석하여 서술하는 3인칭 전지적 시점이다.

34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으면서 인물이나 사건의 외형적인 면을 관찰하여 전달하기 때문에 인물의 성격이나 내면 심리에 대한 것은 독자의 상상력에 맡긴다.

핵심 속삭

P.153 부유한, 만족, 실수, 욕심

P.154 화가, 갈등, 재능, 의심

155~156쪽

문제 해결과 적용

1 (1) 여자, 가정주부, 욕심 / 남자, 화가, 재능, 노력 (2) 상, 삶, 좌절감 / 입선, 재능, 가슴 (3) 인상, 장원, 축하 **2** (1) 서술자, 사실 (2) 생각, 사건 (3) 장원, 진실 / 거리감, 긴장감

소단원 갈무리

157쪽

글의 개관 해학적, 주인공, 역순행적, 비속어

글의 짜임 감자, 고추장, 동백꽃

소재의 의미와 기능 감자, 분노, 화해, 순수

인물의 처지와 성격 마름, 적극적 / 소작능, 어수룩함

작품의 해학적 비속어, 웃음



01 ㉔ 02 ㉔ 03 ㉔, ㉕ 04 호의를 거절당하여 무안하고 '나'가 야속했을 것이다. 05 ㉔ 06 ㉕ 07 닭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고추장을 먹인 것이다. 08 ㉕ 09 ㉔ 10 ㉔ 11 ㉔ 12 점순이와 '나'의 갈등이 해소되고 사랑이 시작되는 것을 순수하게 표현한다. 13 ㉔ 14 ㉔ 15 ㉔ 16 (가)의 '나'는 자신이 그린 그림에 다른 사람의 출품 번호를 써 넣었다.

01 이 글은 1인칭 서술자인 '나'가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인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따라서 주인공의 내면 심리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독자에게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③, ⑤ '나'는 작품 속 등장인물이다.

④ '나'는 자신의 심리만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2 '나'는 자신을 좋아하는 점순이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하고 점순이의 호의를 거절한 것이다.

03 점순이는 '감자'를 건네며 '나'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지만, '나'가 이를 거절함으로써 '감자'는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는 소재로 작용한다.

오답 풀이 ① 두 인물의 사랑을 서정적으로 표현하는 소재는 해당 부분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②, ④ 감자는 갈등을 유발하는 소재로,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암시하거나 두 인물이 화해하는 계기가 되지 않는다.

04 점순이는 자신이 내민 감자를 '나'가 거절하자 무안하고 부끄러웠을 것이며 '나'가 야속하고 원망스러웠을 것이다.

05 점순이의 수탉이 '나'의 수탉에게 지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06 ㉔에서 '나'는 옥을 먹으면서도 대거리(상대편에게 맞서서 대들) 한마디 못한다고 하였으므로, '나'가 점순이에게 함부로 대들지 못하는 처지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나'가 점순이에게 옥을 먹었다고 하였으므로 점순이가 '나'를 괴롭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나'는 점순이에게 대들지 못하는 것을 억울해하고 있다.

③ '나'는 점순이가 욕하는 것을 몹시 분하게 생각하고 있다.

④ '나'는 점순이에게 욕을 먹으면서도 맞서지 못하는 상황에 억울함을 느끼고 있다.

07 '나'는 씬닭에게 고추장을 먹이면 기운이 뻗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수탉에게 고추장을 먹인 후 점순이의 수탉과 씬닭을 붙였다. 따라서 '나'가 닭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수탉에게 고추장을 먹였음을 알 수 있다.

08 (라)에서 '나'는 자신의 수탉이 점순이의 수탉을 쪼았을 때는 신이 나서 응원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나'의 수탉

이 점순이의 수탉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에는 '넋이 풀려 기둥같이 묵묵히 서 있게' 되었다고 하였으므로 실망하였음을 알 수 있다.

09 '나'는 "그럼 너 이담부텀 안 그럴 테냐?"라는 점순이의 질문에 영문도 모른 채 "그래!"라고 대답하는 등의 어수룩한 모습을 보여 독자들의 웃음을 유발하였다.

오답 풀이 ② '나'는 점순이의 마음을 몰랐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④ '나'의 입장에서 서술되므로 '나'의 내면은 직접 드러나지만 점순이의 마음은 구체적으로 서술되지 않는다.

⑤ '나'가 점순이에게 괴롭힘당하는 모습을 서술하지만, 독자는 점순이의 행동이 '나'에 대한 관심의 표현임을 알 수 있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10 (가)에서 '나'는 점순이를 떠올리며 '고넨', '망할 넨' 등의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때 사용된 비속어는 인물의 감정을 실감 나게 표현하고 현장감과 사실감을 높이며, 독자에게 웃음을 유발한다.

11 닭이 죽고(㉕) 그 일을 점순이가 비밀로 해 주기로 하며 '나'와 점순이의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12 이 글에서 '동백꽃(㉔)'은 두 인물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보여 주는 소재로 두 사람의 화해와 사랑의 시작을 의미한다.

13 이 글의 서술자는 두 명이며, 모두 어린 시절 사생 대회에서 일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고백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에는 당시의 사회적 상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③ 이 글의 서술자는 '나'로 1인칭 주인공의 입장에서 자신의 내면까지도 전달하고 있다.

④ 이 글에서 공간적 배경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며 공간의 변화가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을 강조하지도 않는다.

⑤ 서술자는 과거를 회상하고 있으나 현재와 과거를 교차하여 제시하지 않았다.

14 (가)의 '나'는 다른 누군가가 아닌 스스로의 실수로 인해 상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15 ㉔, ㉕, ㉖은 자신이 그리지 않은 히말라야시다 그림으로 상을 받게 된 (나)의 '나'이며, ㉗과 ㉘은 히말라야시다 그림을 그렸지만 출품 번호를 잘못 써서 낸 진짜 주인인 (가)의 '나'이다.

16 (가)의 '나'는 어린 시절 자신이 그린 그림에 다른 사람의 출품 번호인 124번을 써서 제출하였고 그것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결국 다른 사람이 상을 받게 되었다.

- 01 ② 02 ⑤ 03 ⑤ 04 ② 05 '타전 소리'의 원관념은 '울음'으로,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귀뚜라미가 자신이 살아 있다고 알리는 소리를 의미한다. 06 ④ 07 ④ 08 ① 09 어머니를 속상하게 하는 일은 그만하라는 의미이다. 10 ③ 11 ① 12 수탉의 크기가 다르게 설정된 것은 소작농의 아들인 '나'와 달리 마름집 딸인 점순이가 더 우월한 위치에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13 ④ 14 ① 15 ① 16 ③ 17 '나'의 감정을 표현하여 웃음을 유발하였다. 18 ④ 19 ① 20 매미, 현재 자신의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존재를 의미한다. 21 ② 22 ④ 23 ① 24 점순이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였으면서 무턱대고 대답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 '나'가 눈치 없고 어수룩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25 ⑤ 26 ③ 27 ③ 28 ⑤

- 01 이 시의 화자는 시 속에 등장한 '나'이며, '나'는 의인화된 귀뚜라미이다.

오답 풀이 ① 시인은 작품 속에 화자('나')를 설정하여 화자로 하여금 자신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하고 있다.

③ 화자('나')는 작품 속에 등장하고 있다.

④ 화자는 여러 명이 아니라 '나' 한 명이다.

⑤ 화자의 연령대는 드러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어린아이가 아닌 성숙한 존재라는 점을 알 수 있다.

- 02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도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소망을 잃지 않는 귀뚜라미의 태도와 가장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 03 ㉠은 '맑은 가을이 어린 풀쭈를 위로 내려와 뒤척이기도 하고 계단을 타고 내려' 온다며 '가을'을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번 또한 '어둠'을 '성큼성큼 내려오고 있다'며 의인화하여 표현하였다.

- 04 이 시의 화자인 '귀뚜라미'는 매미 떼가 하늘을 찌르는 여름에 있지만 <보기>의 화자가 겪고 있는 계절이 여름인지는 알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이 시의 화자는 '귀뚜라미'이고, <보기>의 화자는 '나룻배'로, 사람이 아니지만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다.

③ 이 시의 화자는 매미 소리가 하늘을 찌르는 여름에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견디며 자신의 울음이 노래가 되는 소망을 이를 날을 기다리고 있으며, <보기>의 화자는 자신의 소망인 '당신'이 올 때까지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기다리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두 화자 모두 인내하며 소망하는 바를 기다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보기> 시의 화자는 존댓말을 사용하여 당신을 기다리는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 이 시의 화자는 자신의 울음이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 가는 노래가 될 날을 소망하고 있으며, <보기>의 화자는 '당신'을 만날 날

을 기다리고 있다.

- 05 '타전 소리'는 귀뚜라미가 고통스러운 삶의 공간에서 자신이 살아 있음을 알리기 위해 토해 내는 울음으로, 아직은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이나 위안이 되는 노래가 되지 못한 소리이다.

- 06 (가)는 화자가 자신의 삶의 모습에 대해 고백하듯 이야기하고 있으며, (나)는 화자인 '나'와 엄마가 나누는 대화를 인용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는 미래에 대한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지만 (나)에는 드러나지 않는다.

② (가)에 '귀뚜라미'와 '매미'라는 자연물이 등장하지만, 화자는 자신의 울음이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 가는 '노래'가 되길 바라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 (나)는 엄마를 찾다가 길을 잃고, 다시 만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두 작품 모두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지 않았다.

③ (나)의 화자는 어린아이로 볼 수 있지만, (가)의 화자는 성숙한 말투와 생각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어린아이라고 볼 수 없다.

⑤ (가)는 청각적 심상을, (나)는 시각적 심상을 주로 활용하였다.

- 07 가을(㉠)은 매미 소리가 걸히는 계절이다. (가)의 화자는 자신의 울음이 노래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가을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 08 (나)에서는 '어머니 ~ 좋다.'라는 구절을 반복하고 있으며, '쫄데기'와 '알맹이'라는 대조적인 의미를 지닌 소재를 통해 어머니에게 '나'의 존재가 의미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09 ㉡는 어머니가 아이에게 나무라는 말로 길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이 어머니를 속상하게 하는 일은 하지 말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10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나'의 행동과 속마음을 중심으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또한 소설에 등장하는 점순이가 하는 말이나 걸음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태도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나, 점순이의 속마음은 제시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점순이의 마음을 모르는 '나'의 행동이 웃음을 유발한다.

- 11 이 글은 '나'와 점순이가 갈등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나'와 점순이 사이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여 '현재-과거-현재'의 순으로 제시하는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가)~(라)는 두 주인공의 갈등이 드러나는 장면으로, 점순이에 대한 '나'의 원망과 분노의 감정이 유지되고 있다.

③ (가)~(라)의 서술자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나' 한 명으로 서술자에 따라 사건이 교차되지 않는다.

④ (가)~(라)의 공간적 배경은 시골 마을로, 공간의 이동은 나타나



지 않는다.

⑤ 소재의 상징적 의미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12 이 글에서 점순이는 마름의 딸이며, '나'는 소작농의 아들로 '나'는 점순이에게 소극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닭의 몸집 차이는 이러한 '나'와 점순이의 처지의 차이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13 점순이는 '나'에게 호감이 있어서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과 같이 말을 걸고 있는 것이다.

14 이 글은 1930년대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창작된 작품이지만, 작품에는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15 ㉠은 점순이가 내는 소리로, 점순이는 일을 끝내고 내려오는 '나'가 지나는 길목에서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해 '호르기'를 불고 있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② ㉠ '얼굴 예쁜 계집애': '나'가 예전에 생각했던 점순이의 인상을 말한다.

③ ㉡ '남의 닭': '나'의 닭과 싸움을 하던 덩치가 큰 점순이네 닭을 가리킨다.

④ ㉢ '영, 하고 울음을 놓았다.': 화를 참지 못한 '나'가 점순네 닭을 죽인 뒤에, 자신이 저지른 일에 당황하고, 놀라서 우는 것이다.

⑤ ㉣ '노란 동백꽃': 점순이와 '나'의 순수한 사랑을 상징한다.

16 '나'는 점순이네 닭을 죽인 후 집과 땅을 빼앗길 수 있다는 생각에 놀라고 불안하여 울음을 터뜨렸는데 점순이가 용서해 줄 기미를 보이자 얼른 닭을 한 것이다.

17 ㉤는 '나'가 비속어를 사용하여 점순이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웃음을 유발한다.

18 (가), (다)는 시이고, (나)는 노랫말이다. 각각의 작품에서 화자는 작품의 정서와 주제를 드러내고 분위기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19 (가)는 귀뚜라미를 의인화하여 화자로 설정하였으며, 화자인 '나'가 작품에 직접 등장하여 정서를 고백적 어조로 말하고 있다.

20 '매미'는 귀뚜라미와 달리 여름 한낮에 하늘을 찌르는 큰소리를 내며 귀뚜라미의 소리가 들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21 ㉠은 길을 잃은 아들을 찾는 데서 오는 안도감과 기쁜 마음에 흘리는 눈물이고, ㉡은 전학을 가면서 친구들과 이별하게 된 것을 몹시 슬퍼하는 눈물이다.

22 (가)와 (나)는 모두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로 공통적으로 이야기 속에서 자신이 겪은 사건에 대해 주관적인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주인공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기 때문에 자신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② (가)와 (나)에서 공간의 변화가 사건에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하며 서술자의 시점 변화가 나타나지도 않는다.

③ (가)의 서술자는 소년이며, (나)는 성인이다.

⑤ 자신을 중심으로 사건을 서술하므로 부정적, 비판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23 ㉠에서 '나'는 점순이에 대한 미움과 반감으로 점순이네 닭을 때려죽이지만 곧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그 후환이 두려워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

24 ㉡에서 영문도 모른 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점순이의 말에 대답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 '나'의 눈치 없고 어수룩한 성격이 드러나고 있다.

25 ㉢는 장원작이 자신의 그림이 아닌 것을 알게 된 후 달라진 '나'의 삶의 태도를 보여 주는 것으로 그림을 그릴 때 재능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매순간 그림 하나하나에 자신이 가진 능력 전부를 쏟아부으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오답 풀이 ① ㉢는 인물의 내면적 갈등에 해당한다.

② ㉣는 인물이 자신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는 과정이다.

③ ㉤는 현실을 받아들이려는 태도로, 다른 인물에 대한 원망이나 반감이 드러나지 않는다.

④ ㉤는 인물이 자신을 끝없이 의심하며 살았다는 내용으로, 이것이 모든 갈등이 해소된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6 (가)의 '나'는 시의 화자이고, (나), (다)의 '나'는 소설의 서술자이다. (가)~(다)의 '나'는 공통적으로 작품 속에 등장하며, 작가가 독자에게 전하려는 주제를 대신 이야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오답 풀이 ① 작가의 창작 의도는 비유나 암시를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② 작품과 관련된 시대 상황에 관한 정보는 드러나지 않는다.

④ (가)는 시이고, (나), (다)는 소설이므로 작가가 경험한 사실적 체험이 드러나지 않는다.

⑤ 작품에서 화자와 서술자는 작품의 정보를 안내하지 않는다.

27 ㉠은 점순이가 '나'에게 감자를 주면서 생색을 내는 표현으로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이다. 따라서 점순이에게는 상대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표현을 써야 한다는 충고가 적절하다.

28 ㉡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작품 속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서술하고 있다. <보기>는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서술자가 사건의 진행 상황과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까지 모두 전해 주고 있다. 그러나 독자가 등장인물과의 거리를 가깝게 느끼는 것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일 때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시험 대비편

1 경험의 발견과 공감

01. 너 바보다

시험에 꼭 나오는 **시문 알맹이 분석**

4쪽

내용 분석 나, 행동, 긍정적

주요 표현 방법 반어, 본받고, 바보, 부정적, 반대, 바보, 운율

필수 문제로 **소단원 완전정복**

5~6쪽

01 ② 02 ③ 03 ④ 04 ③ 05 ① 06 ① 07 ④
08 ⑤ 09 읽는 이에게 대상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갖게 하고, 웃음
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 01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여 에둘러 비판하는 것은 풍자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이 시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 02 선생님의 꾸중을 웃어넘기는 '너'의 모습은 이 시에 나타나지 않았다.
- 03 이 시에서는 '정말', '바보', '너는 참 바보다.'와 같이 시어나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너'의 행동을 본받고 싶은 '나'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 04 두 시 모두 반어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 시에서 '나'는 '너'를 좋아하지만 '너는 참 바보다.'라고 반대로 표현하여 자신의 속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보기>에서도 '그대'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사소한 일'이라고 반대로 표현하여 그대를 향한 사랑이 매우 소중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 05 종장의 첫 음보는 3음절이다.
- 06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가)는 조선 시대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겨운 삶을 드러내고 지배 계층의 허세와 비굴함을 비판하기 위해 지은 것이다. '파리'는 괴롭힘을 당하는 힘없는 백성들을, '두꺼비'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권력자에게 꼼짝 못하는 탐관오리를, '백송골'은 더 힘이 있는 권력자를 상징한다.
- 07 (다)는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하지 말자는 주제를 웃음을 유발하는 풍자 표현을 사용하여 보는 이들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08 (가)와 (다)는 공통적으로 풍자 표현이 쓰였다. 그러나 ⑤는 겉으로는 말이 안 되는 모순된 표현을 통해 중요한 사실이나 진리를 전달하는 역설 표현의 특징에 해당한다.
- 09 (가), (다)와 같이 사회의 부정적인 현상을 간접적으로 지적하기 위해 웃음을 사용하는 풍자 표현을 활용하면, 읽는 이

가 대상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가질 수 있고, 웃음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효과가 있다.

02. 나의 모국어는 침묵

시험에 꼭 나오는 **시문 알맹이 분석**

7쪽

경험을 통한 글쓰이의 깨달음 ① 대화, 침묵, 전통

경험을 통한 글쓰이의 깨달음 ② 평화로움

'침묵'에 대한 인디언들의 생각 모국어, 역설, 침묵

필수 문제로 **소단원 완전정복**

8~9쪽

01 ⑤ 02 ③ 03 누군가를 만나면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한동안 침묵으로 상대방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04 ② 05 ③
06 ③ 07 모국어가 침묵이라는 역설 표현을 통해 말보다 침묵으로 상대방을 더 잘 느낄 수 있다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8 ①

- 01 이 글은 글쓰이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깨달은 바를 자유롭게 서술한 수필이다.
- 02 (나)에서 글쓰이는 인디언들과의 만남 이후에 미국에 갈 때마다 인디언들이 사는 곳을 기웃거리며 인디언들처럼 머리를 땅고 팔찌를 했다고 하였지만, 축제에 참가했을 당시에도 머리를 땅고 팔찌를 했는지는 알 수 없다.
- 03 (가)를 통해 ㉠(그것)이 글쓰이가 인디언을 처음 만났을 때 인디언들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침묵했던 것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04 (나)에서 글쓰이는 미국에서 돌아온 뒤,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침묵하는 인디언들의 전통을 흉내 냈다고 했다. 이렇게 오 분이고 십 분이고 말을 하지 않자 사람들은 글쓰이를 괴팍하고 거만한 사람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 05 (다)의 '말 이전에 침묵이 먼저'라는 표현에서 라코타족이 침묵을 중요하게 생각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라코타족은 대화를 시작할 때 잠시 침묵하는 것을 진정한 예의로 알고 있다.
- 06 인디언들은 누군가와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침묵하는 전통이 있는 것일 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부족과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 07 역설 표현은 겉으로는 모순되지만 그 안에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으로, 그 속에 담긴 의미를 강조하여 나타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시험 대비편

- 08 ㉔과 <보기>의 ㉔은 공통적으로 역설 표현이 사용되었다. ㉔은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인 '모국어'를 아무 말도 없는 상태를 뜻하는 '침묵'과 관련지어 '말보다 침묵으로 상대방을 더 잘 느낄 수 있다.'라는 의미를 전달하였고, <보기>의 ㉔ 또한 책을 읽는 공간인 '도서관'을 '책을 읽지 않는다.'와 관련지어 '아무도 책을 읽지 않는다.'라는 뜻을 담아 표현하였다.

03. 공감하며 대화하기

시험에 꼭 나오는 **지문 알맹이 분석**

10~11쪽

민아 엄마와 민아의 갈등 원인 가치관, 배려
다은이와 민아의 대화 격정
다은이의 대화 태도와 그에 따른 효과 ① 상태, 편안한
다은이의 대화 태도와 그에 따른 효과 ② 경험, 조언, 공감, 처지
다은 엄마가 공감하며 대화하기 위해 활용한 방법 관심, 재진술, 경험

필수 문제로 **소단원 완전정복**

12~13쪽

01 ⑤ 02 ③ 03 ⑤ 04 ⑤ 05 ④ 06 ⑤ 07 민아와
의 공감대를 마련하여 친근감을 회복하기 위해서이다.

- 01 민아는 엄마가 자신을 위해 주는 것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답답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조금 더 잘해 주기를 바란다고 볼 수 없다.
- 02 민아 엄마는 인형을 만드는 것은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쓸데없는 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민아는 공부 외에도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할 일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03 민아는 화가 난 나머지 엄마의 기분이나 감정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며 예의 없이 말하고 있다.
- 04 다은이는 어른들이라고 뭐든 알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은 서운한 것이 있으면 일단 엄마에게 다 이야기한다고 하였다.
- 05 (가)에서 민아 엄마가 서운함을 표출한 민아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 06 ㉔은 다은 엄마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민아 엄마에게 조언을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하는 ⑤가 같은 방법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 07 민아 엄마는 만드는 것을 좋아했다는 민아와의 공통점을 이야기하며 민아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하고 있다.

실력을 완성하는 **대단원 모의평가**

14~19쪽

01 ② 02 ⑤ 03 ① 04 그런 네가 좋아서 05 ①
06 ④ 07 ② 08 ⑤ 09 (가)에서는 '너'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나)에서는 '두꺼비'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10 ③
11 ④ 12 ③ 13 침묵은 흥내가 아니라 존재의 평화로움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14 ③ 15 ③ 16 ④
17 ㉔에서 '모국어'는 말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단어이고, '침묵'은 말을 하지 않는 상태를 표현한 단어이므로 모국어가 침묵이라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표현이다. 하지만 이 안에는 말보다 침묵으로 상대방을 더 잘 느낄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역설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18 ⑤ 19 엄마와 갈등하여 답답했었는데 다은이의 조언으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을 것이다. 20 ③ 21 ④
22 ①

- 01 (가)의 1연에는 화자인 '나'가 관찰한 대상인 '너'의 모범적인 행동들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다.
- 02 (가)에서는 '바보', '정말', '너는 참 바보다.'와 같이 단어와 문장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너'의 행동을 본받고 싶은 '나'의 마음을 강조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따라서 음악적 효과만 얻고 있다는 ⑤는 적절하지 않다.
- 03 씹던 껌을 아무 데나 뱉지 않고 굳이 종이에 싸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은 '너'가 아무리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규칙을 꼭 지키는 바른 아이임을 보여 준다.
- 04 반어 표현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대되게 나타내어 강조하는 표현을 뜻한다. 따라서 ㉔('너는 참 바보다.')와 반대되는 '나'의 속마음은, 2연의 '그런 네가 좋아서'이다.
- 05 2연에서 알 수 있듯이 '나'는 규칙을 지키고 바르게 살아가는 '너'를 좋아하며 본받고 싶어 한다.
- 06 (나)는 사실시조로, 일정한 음보를 반복하고 3~5자의 일정한 글자 수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내재율은 주로 현대시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 07 (나)와 <보기>는 모두 웃음을 유발하여 부정적인 상황을 비판하는 '풍자 표현'을 사용하였다.
- 08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 있는 '두꺼비'의 모습은 약자를 억압하고 괴롭히는 탐관오리의 부정적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 09 (가)에서는 착하고 바른 '너'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나)에서는 '두꺼비'로 상징되는 탐관오리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 10 이 글은 수필로, 상상력으로 지어낸 소설과 달리 글쓰이가 실제로 겪은 가치 있는 경험을 사실 그대로 보여 주고 그에 대한 글쓰이의 생각을 드러낸다.
- 11 글쓰이는 인디언들과 교류하기를 원하고 그들의 방식을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려는 것이 아니다.
- 12 인디언들이 글쓰이에게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를 만났을 때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한동안 침묵하는 것은 인디언 부족들의 전통이다.
- 13 글쓰이는 미국 축제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우선 침묵을 하는 인디언들의 전통을 보며 인디언들의 생각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미국에서 돌아와 그러한 인디언들의 전통을 흉내 내고 받은 사람들의 평가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침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 14 글쓰이는 인디언들이 대화를 시작할 때 잠시 침묵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며 그러한 모습을 본받으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인디언들처럼 살지 않는 것을 불행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 15 글쓰이는 인디언들과 몇 번의 여행을 하면서 ㉠(‘너무 많이 말해’)와 같은 인디언식 이름을 얻었고, 이를 통해 자신이 평소에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았음을 반성하고 있다.
- 16 라코타족은 대화를 시작할 때 잠시 침묵하는 것을 진정한 예의라고 여긴다. 특히 상대방에게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먼저 침묵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 사람의 슬픔에 대한 진정한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18 다른 엄마는 민아 엄마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비슷한 처지의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공유하며 민아 엄마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 19 민아는 엄마와 갈등한 적이 없어서 몹시 혼란스럽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도 되었는데,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다은이의 조언을 듣고 나니, 자신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심이 되었을 것이다.
- 20 다은이도 민아와 유사한 상황에서 겪었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다른 엄마도 민아 엄마와 같은 입장에서 겪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함으로써 상대방의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 21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며 상대방이 잘한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공감하는 대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22 송이는 유정이가 자신의 감정이나 처지는 배려하지 않고 본인의 관점에서만 문제를 분석하고 일방적으로 충고하려고 해서 기분 나빠 하는 것이다.

2 읽고 쓰는 즐거움

01. 과학자의 서재

시험에 꼭 나오는 **신문 알맹이 분석**

20~21 쪽

글쓰이의 읽기 경험 ① 호기심
독서의 가치에 대한 글쓰이의 생각 원칙, 자세, 감동, 인생
글쓰이의 읽기 경험 ② 자연, 색깔, 창의적, 감성
글쓰이의 읽기 경험 ③ 호기심, 지식, 세계
글쓰이의 읽기 경험 ④ 사회 생물학
글쓰이가 작품 속 개미로부터 발견한 이타주의 희생, 이타주의

필수 문제로 **소단원 완전정복**

22~23 쪽

01 ③ 02 ③ 03 ⑤ 04 ㉠에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 ㉡에서는 창의력과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05 ⑤ 06 ④ 07 ⑤ 08 불에 타 죽을 것이 뻔한데도 타오르는 통나무에 모여들어 죽어 가는 개미의 행동은 모여 사는 집을 구하기 위한 희생으로, 이타주의에 바탕을 둔 것이다.

- 01 (가)를 통해 글쓰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며 지내는 시간에 상상력이 자라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02 글쓰이는 (나)에서 백과사전의 장점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을 필요 없이 아무 쪽이나 펼쳐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는 점을 백과사전의 장점으로 꼽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백과사전은 아무 쪽이나 펼쳐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고 하였다.
② (나)에서 글쓰이는 사진을 통해 처음 본 신기한 동물들이 호기심을 자극했다고 하였다.
④ (나)에서 글쓰이는 우연히 백과사전을 펼쳐 본 그때부터 틈만 나면 책을 끼고 살았다고 하였다.
⑤ (나)에서 백과사전을 읽다 보면 마당 가득 노을빛이 물들곤 하였다고 한 부분을 통해 해가 저물 때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책을 읽었음을 알 수 있다.
- 03 (라)에서 글쓰이는 세계 동화 전집을 읽고 세상과 자연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말하며 혼자 깊이 생각하거나 무엇인가를 쓰고, 자연을 바라보는 등 변화된 자신의 행동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제시된 부분만으로는 글쓰이가 책 읽는 것 이외의 일에는 흥미를 모두 잃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 04 읽기의 가치에는 지식과 정보 획득, 정서 함양, 창의력 및 사고력 증진, 가치관 형성 등이 있는데 ㉠에서는 지식과 정



시험 대비편

보 획득, ㉔에서는 창의력 및 사고력을 증진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05 (가)에서 글쓰이는 노벨 문학상 전집을 읽으면서 배경이나 인물들의 성격, 사회적 상황, 문화 등이 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 작품과는 또 다른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였다.

06 글쓰이는 (다)를 읽고 생긴 의문을 사회 생물학이라는 학문을 통해 풀게 되었던 경험을 말하고 있을 뿐, 문학 작품에 나타난 현상을 반드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지는 않았다.

오답 풀이 ① (마)에서 '사회 생물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타주의'라고 하였다.

② 글쓰이는 (다)를 읽고, 불에 타 죽을 것을 알면서도 통나무에 모여든 개미의 행동에 의문을 갖게 되었다.

③ (마)에서 이타주의는 실제로 우리 인간 사회에도 있고, 동물 세계에도 존재한다고 하였다.

⑤ (라)에서 글쓰이는 사회 생물학이라는 학문이 삶의 수수께끼들을 가지런히 정리해서 대답해 주었다고 하였다.

07 사회 생물학이라는 학문을 접한 글쓰이는 <모닥불과 개미>에서 읽었던 개미의 이상한 행동이 떠올랐고, 사회 생물학을 통해 그것을 이해하게 된 순간 이 학문을 평생 공부하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08 글쓰이는 사회 생물학을 접하고 동물 세계에도 자신을 희생하는 이타주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를 통해 (다)에 나타난 개미의 이상 행동이 이타주의에 바탕을 둔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02. 민재의 독서 일기

시험에 꼭 나오는 **지문 알맹이 분석**

24~25쪽

민재의 독서 활동 ① 관심 분야

민재의 독서 활동 ② 토론, 책

민재의 독서 활동 ③ 독서 기행, 소나기 마을

독서 기행을 다녀와서 느낀 점 다른 작품, 배경지식

민재의 독서 활동 ④ 독서 신문, 감상문, 광고

독서 신문에 쓰인 관용 표현 시작, 방도

독서 신문에 쓰인 속담 자루, 송곳

독서 신문에 쓰인 격언·명언 소중하다

독서 신문에 쓰인 참신한 표현 서재, 내용, 우물, 전환

필수 문제로 **소단원 완전정복**

26~27쪽

01 ④ **02** ⑤ **03** ⑤ **04** (가)~(라)에서는 아침 독서, 독서 동아리 활동, 독서 기행 등의 활동이 제시되었다. 이 활동들을 통해 읽기를 생활화할 수 있다. **05** ②, ③ **06** 발상의 전환을 통해 속담을 반대로 표현하여 다양한 분야에 도전해 보라는 의미를 참신하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07** ⑤ **08** ④

01 (가)의 '아침 독서' 활동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꾸준히 책을 읽는 것에 의의를 두는 활동으로, 주어진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분량의 책을 읽는 것이 아니다.

02 (나)에서 민재가 일 년 동안 하게 될 독서 동아리 활동에는 독서 토론, 서점과 공공 도서관 방문, 독서 기행, 독서 캠프, 나만의 책 쓰기 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3 (라)에서 민재는 독서 기행을 다녀온 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명언이 떠오른다고 하였다. 이는 배경지식을 가지고 대상을 바라볼 때 더 많이 알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의미이므로 ⑤는 잘못된 설명이다.

05 '첫발을 떼다'는 '어떤 일이나 사업의 시작에 들어서다'라는 의미의 관용 표현이고, '길을 열다'는 '방도를 찾아내거나 마련하다'라는 의미의 관용 표현이다.

오답 풀이 ① 《과학자의 서재》를 쓴 글쓰이가 말한 격언·명언이다.

④ 서재를 다시 정의하는 참신한 표현이다.

⑤ '자루 속의 송곳'은 속담이다.

06 ㉔은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라는 속담을 반대로 표현하여 다양한 꿈을 꾸는 것이 좋다는 의미를 참신하게 전달하고 있다.

07 ㉔과 ㉔은 모두 속담에 해당한다.

08 (가), (나)를 통해 속담, 격언, 관용 표현, 참신한 표현 등 다양한 표현을 활용하면 생각과 느낌, 경험을 어렵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인상적으로 나타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실력을 완성하는 **대단원 모의평가**

28~31쪽

01 ⑤ **02** ③ **03** ② **04** ③ **05** ④ **06** ③ **07** ⑤ **08** ① **09** 이타주의 **10** ⑤ **11** ③ **12** • 관용 표현: (의자에) 엉덩이를 붙였다. • 의미: '자리를 잡고 앉다.'라는 뜻이다. **13** ② **14** ③ **15** • 속담: 자루 속의 송곳 • 의미: 아무리 숨겨져 하더라도 숨길 수 없고 그 정체가 드러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01 이 글은 인생과 사물에 대한 글쓰이의 생각과 느낌을 일정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한 수필이다. ⑤는 소설

이나 희곡의 특징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 02** 글쓴이는 (나)에서 백과사전을 읽으면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재미가 생각지도 못한 즐거움을 선사했다고 하였다.
- 03** 글쓴이는 어릴 때 감명 깊게 읽은 책인 《사랑의 학교》를 어른이 되어 다시 읽으니 색다른 감동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였지, 읽는 시간이 단축되어 좋다고 하지는 않았다.
- 04** (마)에서 글쓴이는 ‘동화 덕분에 다른 아이들보다 성숙해지면서 나만의 특별한 색깔을 만들어 간 것’ 같다고 하였을 뿐, 우울한 성격으로 바뀐 것이 아니다.
- 05** (가)에서 글쓴이는 노벨 문학상 전집을 읽고 문학적 감수성을 키우는 것 외에 지적인 호기심을 채울 수 있었다고 하였다.
- 06** (가)~(나)에서 글쓴이는 그전까지의 책 읽기와 달리 노벨 문학상 전집은 다른 나라의 역사와 지식, 정보 등을 얻게 해 주어 정신세계가 훨씬 넓은 세계로 옮겨 갔다고 하였으므로 ③과 같은 소재목이 가장 적절하다.
- 07** 훗날 미국에서 사회 생물학이라는 학문을 접한 글쓴이는 〈모닥불과 개미〉에서 읽었던 개미의 이상한 행동이 떠올랐고, 사회 생물학을 통해 그것을 이해하게 된 순간 이 학문을 평생 공부하겠다고 결정하였다고 하였다.
- 08** (다)에서 글쓴이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것은 소설이 아닌 책 뒷부분에 실린 반 쪽짜리 수필인 〈모닥불과 개미〉라고 하였다.
- 09** 불에 타 죽을 것이 뻔한데도 타오르는 통나무 주위에 모여들어 죽어 가는 개미의 행동은 모여 사는 집을 구하기 위한 희생으로, 이타주의에 바탕을 둔 것이다.
- 10** (라)에서 민재는 독서 기행을 다녀온 뒤에 책을 읽고 여행하는 것이 무척 흥미로운 일임을 깨닫고, 《개미 제국의 발견》을 읽고 나면 자연사 박물관에 가 봐야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따라서 민재가 소나기 마을보다 자연사 박물관에 더 흥미를 느꼈다고 볼 수는 없다.
- 11** 민재는 독서 기행을 다녀온 뒤 〈소나기〉를 더욱 깊이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아는 만큼 보인다.”에 담긴 뜻을 유추하면 ③이 적절하다.
- 13** (나)의 책 광고에 쓰인 ‘서재는 책을 모아 두는 공간이 아닙니다. 당신의 꿈이 쌓이는 공간입니다.’는 서재를 다시 정의하여 책의 내용을 잘 드러내는 참신한 표현이다.
- 14** 〈보기〉는 민재네 모듬이 열심히 고민한 덕분에 독서 신문이 잘 만들어진 것 같다는 자신의 느낌을 ‘궁든 탑이 무너지랴.’라는 속담을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3 소통하는 우리

01. 핵심이 드러나는 발표

시험에 꼭 나오는 **신문 알맹이 분석**

32~33쪽

발표 주제를 정할 때 고려할 점 예상 청중, 목적
 지아네 모듬이 세운 발표 계획 정보, 관리
 지아네 모듬이 조사하기로 한 내용 정도, 원인, 청소년, 관리
 발표 내용 선정 시 유의할 점 주제, 목적, 출처
 발표 내용의 구성 방법 핵심 정보, 순서, 매체 자료
 매체 자료 활용의 효과 관심, 이해
 발표에 쓰인 준언어·비언어적 표현 발음, 목소리, 자세
 활용한 매체 자료의 효과 스트레스, 사진, 도표
 매체 자료의 적절성 판단 기준 내용, 흥미, 이해

필수 문제로 **소단원 완전정복**

34~35쪽

- 01** ④ **02** ④ **03** ② **04** ㉠, 청소년의 비만 문제는 발표 주제인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관리 방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05** ⑤
06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여 발표에 관심을 갖게 한다. **07** ①

- 01** (가)는 ‘발표 계획하기’ 과정으로 예상 청중을 분석하고 발표 주제와 발표 목적을 정한다. 매체 자료를 선정하는 것은 ‘발표 내용 구성하기’ 단계에서 하는 활동이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친구들이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알았으면 좋겠다며 발표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발표를하기로 정하였다.
 ② (가)에서 지현은 스트레스 중에서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다뤄보자고 말하며 발표 주제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③ (가)에서 성수의 말을 통해 발표의 예상 청중인 반 친구들의 상황과 관심을 고려하여 발표 주제를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가)는 발표의 과정 중 발표 주제를 정하는 ‘발표 계획하기’ 과정이다.
- 02** 조사한 자료의 내용을 함부로 바꾸면 정보 활용 윤리에 어긋나므로 내용을 함부로 바꾸면 안 된다.
- 03** 발표의 정리 단계에서는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당부의 말을 전하는 것이 좋다. 발표 주제와 순서를 안내하는 것은 발표의 도입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 05** (마)에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먼저 스스로 스트레스를 좋은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찾아 실천해야 한다고 하였다.
- 07** B는 A의 내용을 한눈에 보기 쉽게 그래프로 나타낸 매체 자료로, 두 자료의 내용은 동일하므로 B보다 A를 더 신뢰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시험 대비편

02. 한글의 창제 원리와 특성

시험에 꼭 나오는 **지문 알맹이 분석**

36~37쪽

한글 창제 배경 한자, 책, 편지, 어려움

한글 창제 목적 글자, 불편함

한글 자음자를 만든 원리 가획, 병서

한글 모음자를 만든 원리 상형, 하늘, 땅, 사람 / 합성, ㅡ, ㅣ, ㅏ, ㅑ, ㅓ, ㅕ

한글의 특성 가획, 발음, 소릿값, 모아쓰기

필수 문제로 **소단원 완전정복**

38~39쪽

01 ⑤ 02 한글의 자음 기본자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뜬 상형의 원리로 만들었다. 03 ⑤ 04 ⑤ 05 ④ 06 ④ 07 ① 08 ④

09 자판에 표시된 글자를 바로 입력하기 때문에 쉽고 빠르다.

01 한자는 한글 창제 이전부터 사용되었던 문자로, 한자로는 우리말을 완전히 표기하지 못하여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세종 대왕이 한글을 새롭게 만든 것이다. 그러나 한글 창제 이후에도 한자 사용은 금지되지 않았다.

02 <보기>에 제시된 ‘ㄱ, ㄴ, ㄹ, ㅁ, ㅂ, ㅇ’은 자음 기본자로 이 자음자는 각각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것을 상형의 원리라고 한다.

03 ‘ㄷ’은 ‘ㄴ’에, ‘ㅂ’은 ‘ㄹ’에, ‘ㅊ’은 ‘ㅈ’에, ‘ㅋ’은 ‘ㄱ’에 획을 더하는 가획의 원리에 따라 만든 글자이지만, ‘ㅍ’은 ‘ㅍ’을 가로로 나란히 쓴 병서의 원리로 만든 글자이다.

04 <보기>에서 선생님은 한글 자음자를 만드는 원리 중 병서의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빈칸에 들어갈 글자는 ‘ㅌ, ㅍ, ㅍ, ㅍ, ㅍ, ㅍ’이다. ‘ㅎ’은 자음 기본자 ‘ㅇ’에 획을 더해서 만든 글자이다.

05 모음 기본자 ‘ㅏ, ㅑ, ㅓ, ㅕ’는 자연의 모양을 본뜬 상형의 원리에 의해 만든 글자로 다른 모음자를 만드는 데 기본이 되는 글자이다.

오답 풀이 ① ‘ㅏ’는 하늘을 본뜬 것이다.

② ‘ㅑ’는 사람을 본뜬 것이다.

③ ‘ㅓ’는 땅을 본뜬 것이다.

⑤ 모음 기본자 ‘ㅏ, ㅑ, ㅓ, ㅕ’는 모두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졌다.

06 <보기>의 모음은 모두 합성의 원리에 의해 만든 것으로 ‘ㅗ, ㅛ, ㅜ, ㅠ’는 ‘ㅏ, ㅑ’에 ‘ㅓ’를 한 번 합하여 만든 것이고, ‘ㅝ, ㅟ, ㅠ, ㅡ’는 ‘ㅗ, ㅛ, ㅜ, ㅠ’에 ‘ㅓ’를 한 번 더 합하여 만든 것이다.

07 (가)는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한 것이며, (나)는 자음자와 모음자를 ‘풀어쓰기’한 것이다. (가)와 같이 모음자를 중심

으로 음절 단위로 모아쓰면 독자가 의미를 빨리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활용이 많은 우리글에서 어근 또는 어간을 찾기 쉽다. 반면 자음자와 모음자를 (나)와 같이 풀어쓰면 무슨 말인지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문장이 길어져 읽는 속도가 느려진다.

오답 풀이 ② 의미를 파악하기에는 모아쓰기를 한 (가)의 방법이 수월하다.

③ 문장이 길어져 읽는 속도가 느려진 것은 (나)의 풀어쓰기 방법이다.

④ 모음자를 중심으로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 한 것은 (가)이다.

⑤ 영어 알파벳을 비롯한 대부분의 문자는 (나)와 같이 풀어쓰기 방식을 취한다.

08 영어 알파벳은 하나의 글자가 다양한 소리를 내는 데 반해 한글은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리를 내기 때문에 익히기 쉽다.

오답 풀이 ①, ③ 영어 알파벳 ‘o’는 단어에 따라 [o](dog), [a](top), [ou](no)와 같이 다양하게 발음된다. 한글은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리를 내는 반면 영어 알파벳은 하나의 글자가 다양한 소리를 내기 때문에 배우기 더 어렵다.

②, ⑤ 한글은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릿값을 가지기 때문에 배우기 쉽고, 단어가 달라져도 글자에 해당하는 발음은 달라지지 않는다.

09 입력하려는 글자의 발음을 알파벳으로 입력하고, 그 음가에 맞는 글자가 뜨면 그중에서 해당하는 글자를 선택해야 하는 중국의 한자, 일본 가나와 달리 한글은 입력하려는 글자를 컴퓨터 자판에서 찾아 누르면 바로 입력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문자를 입력하기가 쉽고 빠르다.

실력을 완성하는 **대단원 모의평가**

40~43쪽

01 ⑤ 02 ① 03 ① 04 ④ 05 ③ 06 청중에게 질문하는 이유는 청중의 흥미를 끌고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이다. 07 ④ 08 ⑤ 09 ⑤ 10 ④ 11 이미 만든 글자를 가로로 나란히 쓰는 병서의 원리에 따라 만든 글자이다. 12 ④ 13 한글의 자음자는 <보기>와 같이 가획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져서 글자 모양이 비슷하면 발음도 비슷하기 때문에 배우기가 쉽다. 14 ② 15 ⑤ 16 ② 17 (가)는 모음 기본자 ‘ㅏ, ㅑ, ㅓ’를 합하여 다른 모음자를 만든 합성의 원리를 적용하였고, (나)는 ‘획 추가’ 자판을 이용하여 자음 기본자에서 획을 추가하여 다른 자음자를 만든 가획의 원리를 적용하였다.

01 발표를 할 때는 핵심 내용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중과의 소통도 중요하다. 그러나 나라는 발표문을 쳐다볼 뿐, 눈을 마주치거나, 질문을 하고 답변을 기다리거나, 반응을 살피는 등의 청중과의 소통에는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02** 발표 주제는 발표 목적에 맞게 하나로 정해야만 짜임새 있는 발표를 할 수 있다. 이것저것을 모두 다룰 경우 발표할 내용이 너무 많고 복잡하여 발표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청중이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 03**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관리 방법’이라는 발표 주제와 ‘청소년 비만으로 고민하는 친구의 경험 소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04** 음악은 ‘청각 자료’에 해당한다. 매체 자료에는 ‘도표, 그래프, 그림, 사진, 실물’ 등의 시각 자료, ‘소리, 음악’ 등의 청각 자료, ‘동영상, 플래시, 애니메이션’ 등의 시청각 자료가 있다.
- 05** 준언어·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면 말로만 표현할 때보다 의미를 더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어서 잘못 전달할 가능성은 줄어든다.
- 06** 발표자가 발표 내용을 전달하는 중에 청중에게 질문을 하는 것은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발표 내용을 잘 듣고 있는지 청중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서이다.
- 07** (라)에서는 청소년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건전한 취미 생활이 도움이 된다고 제시하며,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취미 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동영상 자료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이 발표에서는 학교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거나 건의하지는 않았다.
- 오답 풀이** ① (다)에서 청소년의 과도한 스트레스는 성장 호르몬을 억제하여 성장을 방해한다고 하였다.
- ② (라)에서 스트레스 관리 방법으로 건전한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 ③ (다)에서 과도한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우리 몸에 두통, 소화 불량, 어깨 결림 등과 같은 신체적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 ⑤ (다)에서 청소년이 과도한 스트레스는 심리적으로 불안감, 우울증 등의 이상 증세를 일으켜 청소년의 경우 일탈 행동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하였다.
- 08** 지아는 주제와 발표 흐름에 어울리는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적절하게 발표 내용을 보완하였다.
- 09** 한글의 자음 기본자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ㅇ’은 목구멍 모양(㉠)을 본떠 만든 것이다.
- 오답 풀이**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ㄴ’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ㄷ’은 입술(입)(㉣) 모양을, ‘ㅅ’은 이(㉤) 모양을 각각 본떠 만들었다.
- 10** ‘ㅍ(㉥)’은 이미 만들어진 글자인 ‘ㄱ(㉦)’을 가로로 나란히 쓰는 병서의 원리로 만든 것이다.

- 11** 이미 만든 글자인 ‘ㄱ, ㄷ, ㅂ, ㅅ, ㅈ, ㅎ’을 가로로 나란히 쓰는 병서의 원리에 따라 만든 글자이다.
- 12** ㉥은 ‘ㄱ, ㄴ, ㄷ, ㄹ’에 ‘ㅇ’을 한 번 더 더하여 만든 글자로 ‘ㅊ, ㅋ, ㆁ, ㆌ’가 해당된다.
- 13** 한글의 자음자는 가획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져서 글자 모양이 비슷하면 발음도 비슷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어 배우기 쉬운 것이다.
- 14** <보기>에서 영어 알파벳 ‘a’는 하나의 글자가 다양한 소리([어], [에이], [오])로 발음되는 데 반해 한글 ‘ㅏ’는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리([아])로만 나기 때문에 한글이 영어 알파벳보다 더 배우기 쉽다.
- 15** 한자의 수는 5만 개 이상으로 <보기>에 제시된 여러 나라의 문자 중에 글자 수가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글자를 익히기가 쉽지 않다. 반면 한글은 40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글자로, 다른 나라에 비해 글자 수가 적은 편이며,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체계적인 문자이다.
- 16** 한자는 입력하려는 글자의 발음을 로마자 알파벳으로 입력하고, 그 음가에 맞는 한자가 뜨면 그중에서 해당하는 글자를 선택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반면에, 한글은 입력하려는 글자를 자판에서 찾아 바로 입력되기 때문에 쉽고 빠르다.
- 오답 풀이** ①, ④ 자판 왼쪽에는 자음자가 오른쪽에는 모음자가 나뉘어 있어 왼손과 오른손을 번갈아가며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것은 한글이다.
- ③, ⑤ 한글은 입력하려는 글자를 키보드에서 찾아 누르면 바로 입력되기 때문에 일일이 글자의 발음을 로마자 알파벳으로 입력해서 음가에 맞는 한자를 선택해야 하는 한자의 입력 방식보다 쉽고 빠르다.
- 17** (가)는 모음 기본자(ㅏ, ㅑ, ㅓ)를 합하여 다른 모음자를 만드는 합성의 원리를 적용한 휴대 전화 자판이고, (나)는 ‘획 추가’ 자판을 이용하여 자음 기본자(ㄱ, ㄴ, ㄷ, ㅅ, ㅇ)에서 획을 추가하여 다른 자음자를 만드는 가획의 원리를 적용한 휴대 전화 자판이다.



4 세상을 보는 눈

01. 귀뚜라미

시험에 꼭 나오는 **지문 알맹이 분석**

44쪽

내용 분석 귀뚜라미, 여름, 울음, 노래

주요 표현 방법 귀뚜라미, 사람, 의인법, 여름, 귀뚜라미, 대조법

필수 문제로 **소단원 완전정복**

45쪽

01 ⑤ 02 ③ 03 ⑤ 04 ④ 05 이 시의 화자는 '나'로 의인화된 귀뚜라미이며, 시 속에 직접 등장하여 말하고 있다. <보기>의 화자는 진이의 친구로, 시에 드러나지 않고 시 밖에서 말하고 있다.

01 이 시에서는 화자의 시선이 밖에서 안으로 이동함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은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이 시의 화자는 시 속에 등장하는 '나'로 귀뚜라미를 의인화하여 표현하였다.

② 상반되는 처지에 있는 매미와 귀뚜라미의 대조적인 상황을 제시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③ 자연물인 귀뚜라미를 통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의 울음이 다른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노래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④ '귀뚜르르 뚜르르'와 같이 소리를 나타내는 시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02 이 시의 '나(귀뚜라미)'는 지금은 매미 소리에 묻혀 자신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여름이지만, 가을이 되면 자신의 울음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위안이 되는 노래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03 ㉠은 의인법을 사용하여 '가을'이 어린 풀숲 위에 내려와 뒤척이고, 계단을 타고 땅 밑에 내려온다고 사람처럼 표현하였다. 하지만 ㉡에서는 사람이 아닌 것에 인격을 부여하여 사람처럼 표현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다.

04 이 시의 화자는 고통스러운 현재의 상황에 절망하기보다 가을이 오면 자신이 바라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어려운 생활을 꿋꿋이 견디고 있다.

05 '나'와 같이 시 속에 화자를 언급하는 말이 있으면 화자가 작품 안에 직접 드러나며, 직접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면에 숨겨져 있다.

02. 동백꽃

시험에 꼭 나오는 **지문 알맹이 분석**

46~47쪽

<동백꽃>의 서술자 1, 주인공, 점순이, 웃음

'나'와 점순이의 갈등 닭싸움

등장인물의 처지와 성격 소작농, 어수룩 / 마름, 적극적

'감자'의 의미 및 역할 애정, 갈등

'닭싸움'의 의미 호의, 관심, 갈등

'나'와 점순이의 갈등 해소 비밀

'동백꽃'의 의미 갈등, 화해, 순수한, 서정적

필수 문제로 **소단원 완전정복**

48~51쪽

01 ④ 02 ② 03 ④ 04 자신이 건넌 감자를 '나'가 무뚝뚝하게 거절하자 점순이는 무안한 마음에 '나에게 화가 난 것이다. 05 ⑤ 06 ⑤ 07 ⑤ 08 ④ 09 ③ 10 ③ 11 ③ 12 ㉡는 인물의 행동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보여 주고 있고, ㉢는 인물의 심리를 직접 이야기하고 있다. 13 ② 14 ① 15 ④ 16 점순이의 관심을 알아채지 못하는 '나'의 모습에서 어수룩한 성격을 알 수 있고 통명스러운 말투에서 무뚝뚝한 성격을 알 수 있다.

01 이 글에서는 등장인물들이 사용하는 토속어와 구어체 등의 문체를 통해 농촌 마을에 사는 사춘기 소년 소녀가 느끼는 애정과 갈등을 향토적이고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1930년대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으나, 그 당시 농촌 현실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② 작품을 통해 소작농인 '나'의 집안 형편과 가난한 모습 등을 짐작할 수 있지만, 그 시절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다.

③ 이야기의 주인공은 소년이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동경하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⑤ 서술자는 구어체와 비속어를 활용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이야기의 사실감을 드러낼 뿐 낭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는다.

02 점순이는 일하는 '나'에게 감자를 주는 등 '나'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03 (다), (라)에서 '나'는 점순이가 닭싸움을 붙여 자신의 수탈이 빈사지경에 이른 것을 보고 화를 참지 못하고 그만 점순이의 닭을 때려죽이게 된다. 따라서 (다), (라)는 두 인물의 갈등이 최고조에 도달한 절정 부분에 속한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갈등의 원인이 드러나 있다.

②, ③ (나), (다)는 닭싸움을 시키며 나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점순이로 인해 '나'와 점순이가 본격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분으로, 갈등의 해결 방법이나 갈등이 시작된 원인이 드러나지 않는다.

⑤ (라)에서는 화가 난 '나'가 점순이네 닭을 죽이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04 점순이는 '나'에게 남몰래 감자를 건네며 자신의 호감을 드러내지만, 자존심이 상하여 무뚝뚝하게 거절하는 '나'의 행동에 무안하고 부끄러워 화가 난 것이다.

05 이 글의 서술자는 작품 속 주인공인 '나'이다.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나'는 자신의 입장에서 사건을 전개하며 자신의 내면 심리 상태까지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점순이의 심리 상태는 행동과 대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할 뿐,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는 자신의 내면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② '나'는 자신의 입장을 주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③ '나'는 자신의 내면까지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④ '나'는 자신의 심리 상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지만, 점순이에 대해서는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나 말을 서술할 뿐 심리 상태까지는 알지 못한다.

06 '동백꽃'은 시골 마을이라는 공간적 배경의 특성과 풋풋한 사랑이 시작되는 계절인 '봄'을 떠오르게 하는 소재로, 등장인물의 화해와 사랑의 시작을 의미하며 사랑을 순수하고 서정적인 분위로 표현한다.

07 소작농 집안인 '나'의 집은 마름 집안인 점순네 집에서 배재를 얻어 농사를 짓고 있으며, 집까지 빌려 쓰고 있기 때문에 점순네 집의 눈치를 보는 처지이다. 따라서 '나'는 점순이와 대등하지 못한 관계이기 때문에 점순이에게 욕을 먹으면서도 대거리 한마디 못하는 것이다.

08 ㉠은 '나'에게 호의를 거절당한 후 닭싸움을 통해 '나'를 괴롭히던 점순이가 '나'가 닭을 죽인 일을 덮어 주기로 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비밀을 공유하게 된 상황이므로 ㉠의 점순이 대사 이전에는 '나를 바라보며 은근한 목소리로'와 같은 지시문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09 이 글에서 '나'는 닭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닭에게 고추장을 먹인 후 싸움 초반에는 자신의 닭이 이기는 듯하자 고추장을 먹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곧 패하자 고추장을 조금 먹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나'가 순박하면서도 어수룩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10 (가)에서 '나'는 자기 집 수탉이 점순네 수탉을 이기기를 기대하며 닭에게 고추장을 먹였고, (나), (다)에서는 '나'의 닭이 점순네 수탉을 쫓아 대자 통쾌해하였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라)에서는 패배한 닭을 보며 크게 실망하고 있다.

11 '멈쉴하다'는 '멈칫하다'의 방언으로, '뒤로 멈칫하며'와 같이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맥을 보았다)은 '남의 눈치나 뜻을 살피보다'라는 뜻

이다.

② ㉡(눈을 하비고)은 '날카로운 발톱으로' 눈을 긁어 파내다'라는 뜻이다.

④ ㉢(아주 쟁그러워)은 '아주 고소해'의 의미이다.

⑤ ㉣(불기짜를 두드리며)은 '엉덩이를 두드리며'의 의미이다.

12 인물에 대해 서술자가 직접 이야기하는 경우 독자는 서술자가 서술한 내용에 따라 인물을 이해하게 된다. 반면 인물의 행동이나 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경우 독자는 인물의 성격에 대해 스스로 파악해야 한다. ㉡는 '나'의 실망감을 '나'의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는 '나'의 후회와 안타까움을 직접 이야기하고 있다.

13 (가)와 (나)는 모두 서술자가 작품 속에 등장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14 (나)의 서술자인 '나'는 자신의 처한 상황에 만족하며 순응적인 삶을 살고 있으며 그러한 삶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15 ㉠은 1인칭 주인공 시점, <보기>는 3인칭 전지적 시점에서 쓴 것이다. 3인칭 전지적 시점은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모든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를 알고 서술하므로 독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6 ㉠에서 '나'는 말을 거는 점순이의 마음을 파악하지 못하고 통명스럽게 대꾸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어수룩하고 무뚝뚝한 '나'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실력을 완성하는 **대단원** 모의평가

52~56쪽

01 ② **02** ⑤ **03** ⑤ **04** (가)와 (나)의 화자는 공통적으로 시 속에 '나'로 등장하여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05** ② **06** ④ **07** ⑤ **08** '감자'는 '나'에 대한 점순이의 호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가 받기를 거절하면서 두 사람이 갈등하는 계기가 된다. **09** ④ **10** ① **11** 점순이의 마음을 파악하지 못하는 어수룩한 '나'를 서술자로 설정하여 웃음을 유발하였다. **12** ① **13** ⑤ **14** 계절적 배경은 동백꽃이 피어 있는 봄이고, 공간적 배경은 시골 마을이다. **15** ③ **16** ③ **17** ⑤ **18** ① **19** 그는 모든 걸 그림 속에 옥여넣으려고만 했지 비울 줄 몰랐다.

01 (가)에서 화자는 자신과 대조적 특성을 지닌 매미를 비판하지 않았고, (나)의 화자 역시 어머니에게 사랑을 느끼며 '참 좋다'라고 반복하고 있으므로 대상에 비판적인 태도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가)의 화자는 귀뚜라미이고, (나)의 화자는 장에 가신 어머니를 찾다가 길을 잃었던 어린아이이다.

③ (가)는 사람이 아닌 귀뚜라미를 화자로 설정하였다.

④ (가)는 '∼ 올릴 수 있을까', '∼ 노래일 수 있을까'와 같이 의문



시험 대비편

형 문장을 통해, (나)는 '어머니 ~ 좋다.'를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㉔ (가)는 대조적인 특성을 지닌 자연물인 '매미'와 '귀뚜라미'를 소재로 하였고, (나)는 길을 잃었던 경험을 소재로 하였다.

02 이 시의 화자는 매미 소리에 묻혀 자신의 울음이 노래가 되지 못하는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따라서 그런 화자에게 계속해서 노력하면 그토록 원하는 일(울음이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 나가는 노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격려하는 말이 적절하다.

03 ㉔은 (가)의 화자가 처한 힘든 상황을 뜻하는 말이다. <보기>의 시에서 '시련과 고난'을 의미하는 ㉔ '바람'이 이와 가장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04 (가)와 (나)에서 화자는 '나'로 겉에 드러나 있으며 각각의 화자는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05 이 글에서는 강원도 시골의 투박한 말투와 비속어 등을 활용하여 현장감을 높이고 해학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06 점순이는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으며, 일하는 '나'에게 말을 걸거나 감자를 주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07 <보기>는 '나'가 아닌 점순이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서술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㉔와 <보기> 모두 작가가 작품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

② ㉔와 <보기> 모두 서술자는 주관적인 입장을 취한다.

③ ㉔와 <보기>는 '나' → 점순이로 인물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1인칭 주인공 시점이므로 독자가 상상력을 발휘하여 인물의 심리를 유추해야 하는 정도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④ ㉔와 <보기> 모두 서술자는 작품 안에 있다.

08 '감자'는 '나'를 위해 점순이가 몰래 준비한 것이다. '나'에 대한 관심과 호감, 애정을 드러내는 소재이지만, '나'가 이를 거절하면서 무안하고 야속한 마음에 점순이가 '나'를 괴롭히게 되면서 '감자'로 인해 두 사람의 갈등이 시작된다.

09 점순이가 '나'의 집 씨암탉을 데려다가 괴롭히는 것은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이다. 따라서 '나'의 고함 소리에도 놀라는 기색 없이 자신의 행동을 과장하여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점순이의 잔인한 성격을 강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나'에게 관심을 끌려는 점순이의 행동을 강조하는 것이다.

10 (나)에서는 '나'를 괴롭히는 '점순이'와 영문도 모른 채 괴롭힘을 당하는 '나'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11 이 글에서는 독자들은 다 알고 있는 점순이의 마음을 당사자인 서술자 '나'만 모르는 상황을 통해 웃음을 유발하였다.

12 (가)의 '나'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화자이며, (나)의 '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서술자로 작품 속에 위치한다.

13 이 시는 '울음, 노래, 소리, 의성어(귀뚜르르 푸르르)' 등의 청각적 이미지를 주로 활용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2연의 '귀뚜르르 푸르르'에 의성어를 사용하여 생생한 느낌을 주고 있다.

② 2, 3연 마지막 문장을 '~ 있을까.'와 같은 의문형 어미로 마무리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③ 자연물인 '귀뚜라미'에 인격을 부여하여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다.

④ 2연과 3연에서 '~ 수 있을까.'라는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14 (나)의 계절은 노란 동백꽃이 피어 있는 것으로 보아 봄이며, 산도 있고 닭도 키우는 것으로 보아 농촌 마을에서 벌어진 일을 다루고 있다.

15 (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보기>에 제시된 시점은 '3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을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바꾸려면, 인물이 주관적으로 서술한 문장을 바꾸어야 한다. 그런데 ㉔은 서술자인 '나'가 점순이를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쓴 부분으로,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바꾸어도 똑같이 표현할 수 있다.

16 (가)~(라)의 '나'는 모두 작품 속에 등장하는 말하는 이로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17 ㉔은 현재 화자가 처해 있는 공간으로, 시련과 고난의 공간이다.

18 (나)에서는 '껍데기'와 '알맹이'라는 대조적인 시어를 통해 어머니와 '나'의 관계를 비유하였고, '어머니 ~ 좋다.'라는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으로 어머니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강조하였다.

19 ㉔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자가 자신의 내면을 고백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3인칭 전지적 시점에서는 서술자가 3인칭이므로 '나'를 '그'로 바꾸어야 하며, 전지적 시점으로 내면 심리는 그대로 드러나도록 서술해야 한다.